

# 인천 영종도 호적과 한국 호적자료의 현황과 특성

일시 : 2014년 8월 29일(금) 오후 2시  
장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석남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Inha University  
Center for Korean Studies



14:00~14:40	개회	개회사	이명숙(인천시립박물관장)
			김만수(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장)
		축사	
		영종호적	소개 및 관람

사회 : 차인배(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교수)

		<b>일본 소재 한국 호적자료의 현황 및 특성</b>	
15:00~15:30	<b>1주제</b>	발표 : 야마우치 타미히로(新潟大學 교수)	
		<b>19세기 후반 청산진호적과 서남해 도서주민들의 생활양상</b>	
15:30~16:00	<b>2주제</b>	발표 : 김경옥(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교수)	
16:00~16:10		휴 식	
		<b>19세기 후반 영종진호적과 인천 도서주민들의 생활양상</b>	
16:10~16:40	<b>3주제</b>	발표 : 임학성(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교수)	
16:40~17:00		휴 식	

사회 : 배성수(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

17:00~18:00 **좌담** 발표자 및 참가자



## 인천 영종도 호적과 한국 호적자료의 현황과 특성

### ❖ 목 차 ❖

#### 주제발표

사회 : 차인배(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교수)

#### 1주제

일본 소개 한국 호적자료의 현황 및 특성 ..... 5

발표 : 야마우치 타미히로(新潟大學 교수)

#### 2주제

19세기 후반 청산진호적과 서남해 도서주민들의 생활양상 ..... 17

발표 : 김경옥(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교수)

#### 3주제

19세기 후반 영종진호적과 인천 도서주민들의 생활양상 ..... 41

발표 : 임학성(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교수)



1 주 제

## 일본 소재 한국호적의 현황과 특성

야마우치 타미히로(新潟大學 교수)





## 일본 소재 한국호적의 현황과 특성

야마우치 타미히로[山内 民博]\*

### 목 차

1. 머리말
2. 일본 소재 한국호적의 현황
3. 일본 소재 한국호적의 특성
4. 맺음말

### 1. 머리말

지금 일본 각지의 도서관, 박물관 등에 300책을 넘는 한국호적이 보관되어 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한국 여러 지방의 호적들이다. 본 보고에서는 일본 소재 한국호적의 현황과 그 특성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sup>1)</sup>

식민지기 이전의 한국호적은 1896년 호구조사규칙을 전후하여 그 전의 호적대장(구식호적)과 그 이후의 신식호적(광무호적)으로 나눌 수 있다. 《표1》은 일본 소재 한국호적자료의 책 수를 소장 기관별로 표시한 것이다. “기타”는 통기 등 호적관련 자료이다. 332 책 중 호적대장이 126 책이며 그 대부분은 學習院大學(Gakushuin University) 도서관에 있다. 신식호적은 174 책이 있으며 京都大學(Kyoto University) 総合博物館과 學習院大學도서관 소장본이 많다.

\* 니이가타(新潟)대학 인문학부 교수. E-mail: yatmn@human.niigata-u.ac.jp

1) 일본 소재 한국호적의 해제로 東洋文庫東北アジア研究班(朝鮮)편 『日本所在朝鮮戶籍關係資料解題』(東洋文庫, 2004년)이 있다. 자료 현황의 해설로서는 武田幸男 『學習院大學藏朝鮮戶籍大帳の基礎的研究-19世紀慶尙道鎭海縣の戶籍大帳を通じて』(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83년) 1~4쪽, 20~27쪽, 武田幸男 「學習院大學藏の丹城縣戶籍大帳とその意義」(同編 『朝鮮後期の慶尙道丹城縣における社會動態の研究(Ⅰ)』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91년) 18~22쪽, 山内民博 「日本所在朝鮮戶籍關係資料の現況」(전게 『日本所在朝鮮戶籍關係資料解題』) 등이 있다. 이 보고는 이상의 연구/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하 먼저 호적 분류별로 일본 소재 한국호적 현황을 개관한 다음에 그 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표1》 일본소재 한국호적자료 기관별 현황

所蔵機關	戶籍大帳	新式戶籍				기타	計
		戶籍	統表	僧籍	屠漢籍		
①學習院大學圖書館	121	21	5	2	1	1	151
②京都大學總合博物館		109	12	12	1	28	162
③ " 附屬圖書館		1				2	3
④京都大學法學部圖書室		1					1
⑤國立國會圖書館	1						1
⑥天理大學附屬天理圖書館	2	2					4
⑦東京國立博物館	1						1
⑧東京大學總合圖書館				1			1
⑨ " 韓國朝鮮文化研究室		1				1	2
⑩東北大學附屬圖書館	1						1
⑪東洋文庫		2					2
⑫早稻田大學圖書館		2					2
⑬一橋大學附屬圖書館		1					1
計	126	140	17	15	2	32	332

## 2. 일본 소재 한국호적의 현황

### (1) 호적대장

1896년 이전의 호적대장을 지역, 작성 시기 별로 표시하면 《표2》가 된다. 작성 시기는 19세기에 한정되어 경상도, 특히 현재 경상남도 지역의 호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군현별로는 단성현이 25책으로 가장 많다. 그 이외에 친해, 창녕, 안의, 칠원 등이 비교적 책 수가 많고 복수 년도에 걸친 호적이 남아 있다. 경상도 이외로서는 경기 영종과 평안도 중화에 호적이 1책씩 확인되어 있다.

기관별로는 경상도 호적의 대부분은 學習院대학 도서관에 있고 그 이외는 1, 2책씩의

소장이다. 개령과 창원이 天理大學(Tenri University) 天理도서관에, 홍해 호적이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 영종방영 호적이 東京國立博物館에, 평안도 중화 호적이 東北大學(Tohoku University) 도서관에 있다.

《표 2》 호적대장의 지역·년도별 책수

地 域 年次	京畿	慶尙															平安	計
	永宗	興海	開寧	昌原	昌寧	晉州	陝川	泗川	河東	山淸	安義	丹城	金海	漆原	鎭海	中和		
1822 壬午	1	1	1	1											2	1	2	
1825 乙酉					2	1		1	1	3	3		1	3	15			
1828 戊子					2	1								2	1		7	
1831 辛卯						1				1	1	1		2			5	
1834 甲午							1	2				1	1				5	
1837 丁酉								1			2	1	1	1			6	
1840 庚子									1		1		1	1			4	
1843 癸卯								1					1	1	2		5	
1846 丙午								1			1		1	2	1		7	
1849 己酉									1					2	2		6	
1852 壬子												1			1		3	
1855 乙卯								1			1				1		4	
1858 戊午								1	1					1	1		4	
1861 辛酉									1			1		1	1		5	
1864 甲子											1	2		1	2		7	
1867 丁卯								1				1		1			4	
1870 庚午							1		1		1			1	1		6	
1873 癸酉														1	1		2	
1876 丙子													2	1			5	
1879 己卯									1				1		1		4	
1882 壬午								1		1	1	5						
1885 乙酉				1			1			1		3						
1887 丁亥												0						
1888 戊子							1			1	1	3						
1891 辛卯								1				2						
1894 甲午				1		3	1				1	6						
年次不明		1										1						
計	1	1	1	1	14	9	3	9	9	5	14	25	3	12	18	1	126	
所藏機關(註1)	⑦	⑤	⑥	⑥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⑩		

## (2) 신식호적

신식호적 자료로서는 일반적인 호적표를 성책한 호적 이외에 통표, 승적(僧籍), 도한적(屠漢籍) 등이 있다.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면 《표3-1》, 《표3-2》가 된다. 1896년부터 1907년까지의 174책이며 이 중 호적이 140책, 통표가 17책, 승적 15책, 도한적 2책이다.

구식 호적대장과는 달리 신식호적은 전국 각지, 13도와 한성부의 호적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한성부 호적이 61책으로 가장 많고 중서(中署)와 북서(北署)는 복수 년도에 걸쳐 소장되어 있다. 다른 지역은 책 수도 적고 복수 년도에 걸친 호적자료는 거의 없다.

《표 3 -1》 신식호적의 지역·년도별 책수

分類	年次 地域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計	所藏機關 (표1)
戶 籍	漢城 西署 中署 東署 南署 北署								3 1 1 8 7			19		3 20 1 8 29	② ② ② ② ②
	京畿 開城 廣州 龍仁 金浦 通津 楊州 坡州 豐德 漣川					1			1		2			1 1 2 1 1 3 1 1 1	⑪ ② ② ① ⑫ ② ① ② ②
	忠北 淸州 報恩		1							1 1				1 1	② ②
	忠南 公州 燕岐 瑞山 泰安 藍浦									1 1		1		1 1 1 1 1	② ② ② ⑥ ①
	慶北 慶山 義興 尙州 漆谷 長?					1 1					1 1			1 1 1 1 1	① ① ② ② ④
	慶南 草溪 居昌 巨濟							1	2				2	2 2 1	② ② ②
	全北 全州 珍山 扶安 高敞 茂朱 鎭安						1				1 1			1 1 1 1 3 6	⑪ ② ② ① ② ② ②
	全南 光州 南平 長興 昌平					1 1 1								1 1 1 1	③ ① ① ① ①
	黃海 黃州 鳳山 谷山 海州 甕津 殷栗					1 1		1			1			1 1 1 1 2 1	② ① ⑫ ① ② ①
	江原 淮陽 伊川 楊口							1			1		1	1 1 1	② ⑬ ⑥
	咸北 鏡城 茂山					2	1							1 2	① ①
	咸南 永興 北青 端川		3				1							3 1 1	② ① ②
	平北 定州 義州 鐵山 龜城 博川 慈城				1	1					1			2 1 1 2 1 2	① ② ① ①/⑨ ① ②
	平南 德川 順川 陽德		3 1								1 1			1 4 1	② ② ②
計		3	8	2	2	14	7	4	32	5	20	40	3	140	

2014년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표 3-2》 신식 통표 增積 道한적의 지역 年도별 책수

分類	地域	年次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計	所藏機關 (표1)
統表	京畿	開城										1			1	②
		坡州										2			2	②
		廣州				1									1	①
	忠南	公州										1			1	②
		林川										1			1	②
		韓山										1			1	②
		扶餘										1			1	②
		泰安										1			1	②
		海美										1			1	②
		唐津										1			1	②
		鰲川										1			1	②
		鴻山					1								1	①
	慶南	密陽			1										1	①
	全南	靈光				1									1	①
僧籍	江原	淮陽									1				1	②
	咸南	北靑				1									1	①
	計				1	3	1				1	11			17	
屠漢籍	京畿	楊州									1				1	②
	忠南	韓山										1			1	②
		恩津										1			1	②
		扶餘										1			1	②
		泰安										1			1	②
		大興										1			1	②
		唐津										1			1	②
	慶北	醴泉					1								1	⑧
		榮川									1				1	②
	慶南	密陽			1										1	①
	全北	求禮								1					1	②
	江原	江陵								1					1	②
		三陟										1			1	②
		春川								1					1	②
屠漢籍	計				1		1	1		3	2	7			15	
	全南	寶城					1								1	①
	江原	春川								1					1	②
計							1			1					2	

기관별로는 京都大學총합박물관이 134책, 學習院대학 도서관이 29책으로, 신식호적자료의 대부분을 이 두 기관이 차지한다. 京都大學총합박물관 소장본은 다 “韓國戶籍成冊”이란 附箋이 붙여 있다.

### (3) 기타 자료

기타 호적관계 자료로서는 다음과 같은 구식의 통기(統記)와 신식 戶口家宅間數成冊

등이 있다.

公州 統記	1896년 27책	京都大學總合博物館
忠州 統記	연도불명 2책	京都大學附屬圖書館
慶尙南道 密陽 戶口家宅間數成冊	1898년 1책	學習院大學圖書館
慶尙南道 昌寧 戶口家宅間數成冊	1906년 1책	京都大學總合博物館
平安道 成川 戶籍所謄錄	1887년 1책	東京大學韓國朝鮮文化研究室

통기의 대부분은 1896년 1월의 공주의 통기이다. 1896년 9월의 호구조사규칙 이전의 자료이며 10호가 아니라 5호 씩 작통하고 있다. 京都大學총합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동 박물관의 신식호적과 같이 “韓國戶籍成冊”이란 附箋이 있다. 호구가택칸수성책은 1898년의 밀양군과 1906년의 창녕군의 자료가 남아 있다. 군 및 각 면의 호수, 남녀 구수, 가택칸수를 실은 책이며 구식 시기의 이상조, 도이상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平安道 成川의 戶籍所謄錄은 구식 호적 작성에 관한 牒報, 事目, 傳令 등의 등록이다.

### 3. 일본 소재 한국호적의 특성

이상의 호적관련 자료는 작성 시기와 지역, 현 소장기관, 일본 유입 경위 등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 (1) 學習院대학 호적대장

學習院대학 도서관의 호적대장은 시기적으로는 1822년에서 1894년까지의 호적이며 지역적으로는 경상남도 지역에 한정된다. 1907년에 도서관에 등록된 것 같다. 표지에 “邑上”, “縣上” 등의 기재가 있는 호적이 적지 않게 보인다. 감영이나 한성부 상송본이 아닌 각 읍에서 보관되어 있었던 호적이라고 추정된다. 1825년 이후의 단성현 호적도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단성 향교에 있는 18세기까지의 단성현 호적과의 관계가 주목된다.<sup>2)</sup>

2) 단성 향교의 단성현 호적대장의 내력에 관해서는 한영국 「丹城縣戶籍大帳解題」(『丹城縣戶籍大帳下』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년) 877쪽 참조.

## (2) 學習院大學 신식호적

學習院大學 도서관의 신식호적은 1898년에서 1902년까지이며 지역적으로는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황해, 강원, 함북, 함남, 평북의 11도 각지의 호적이 포함된다. 호적대장과 함께 등록되었지만 지역 분포에서 보면 호적대장과는 다른 경위로 유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지에 “京上”, “內部上”이라는 표기가 있는 호적이 있어서 내부에 제출된 호적이었다고 보인다.

## (3) 京都大學 한국호적성책

“韓國戶籍成冊”이란 附箋이 있는 京都大學총합박물관의 호적자료이다. 시기로서는 1896년에서 1907년까지이며 신식호적 134책과 공주의 통기 27책, 창녕의 戶口家宅間數成冊 1책, 합계 162책이다. 1909년에 구입, 등록되어 당초 京都帝國大學文科大學 지리학 교실(사학과 지리학강좌)가 관리했다. 1907년까지의 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學習院大學 신식호적과는 다른 경로로 일본으로 유입된 자료라고 생각된다.

신식호적은 한성부와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황해, 강원, 함남, 평북, 평남의 11도에 걸친 호적이 있다. 한성부 호적은 신고 원본을 성책한 것이며 원래는 한성부에서 보관했었던 호적이라고 보인다.<sup>3)</sup> 각도 호적은 “京上”, “內部上”이라는 표기가 보이며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를 끄는 것이 공주군 통기 27책의 존재이다. 일례를 들면 공주군장척면통기는 표지에 「公州郡長尺面五家作統」이라는 기재가 있고 첫 면은 「建陽元年一月日公州郡長尺面五家作統」으로 시작한다. 1896년 1월의 五家統記이며 원래 공주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경도대학 한국호적성책의 신식호적과는 성격이 다른 자료인데 어떤 경위로 신식호적과 함께 유출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1)에서 (3)의 자료는 1907년부터 1909년에 걸쳐 일본으로 유출되었는데 20세기 초두는 한국 자료를 구해서 일본 古籍商이나 연구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였다.<sup>4)</sup> 1909년에 실시했던 한국 조사에서 귀국한 萩野由之(Hagino Yoshiyuki,

3) 「戶口調査細則」 제11조.

4) 전계 武田幸男 『學習院大學藏朝鮮戶籍大帳の基礎的研究』 1~4쪽.



1860-1924)<sup>5)</sup>는 그 조사에 관한 강연회에서 고종 때에 어떤 일본인 상인이 상납금을 납입해서 정부관련 자료를 입수했는데 지금 일본 대학에 있는 조선 호적장(戶籍帳)은 그 일부라고 말하고 있었다.<sup>6)</sup> 동양사 연구자인 白鳥庫吉(Shiratori Kurakichi, 1865-1942)는 1906년과 1908~1909년의 두 번 한국에서 자료 수집을 기도해서 두 번째 방문 때는 서울의 弘文書院이라는 서점에서 대량의 서적을 구입해 왔다.<sup>7)</sup> 武田幸男은 學習院 한국호적이 學習院교수(겸 東京大學교수)였던 白鳥에 유래되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sup>8)</sup>

#### (4) 기타 호적

學習院과 京都대 종합박물관 이외의 호적은 거의 1, 2책씩의 소장이며 명백한 경향은 볼 수 없다.

구식 호적대장에 주목하면 경상도 흥해군호적(국회도서관, 년대 불명), 개령현호적(天理大學附屬天理圖書館, 1870년), 창원부호적(동, 1834년)과 경기 영종방영장적책(東京국립박물관, 1867년), 평안도 중화군 호적대장(東北大學附屬圖書館, 1852년)이 있다. 경상도 호적 이외에 경기 영종과 평안도 중화군의 호적이 포함되는 점은 주의를 끌다. 경상도 남부지역에 한정되는 學習院 호적대장과는 다른 경위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영종 호적의 내력은 아직까지 불명하지만 중화군 호적은 京都帝國大學文科大學 初代學長이었던 狩野亨吉(Kano Kokichi, 1865-1942)의 舊藏본이다.

신식 호적 중 동경대학 한국조선문화연구실 보관의 평북 구성군 호적 1책은 같은 1898년의 구성군 호적 1책을 學習院도 소장하고 있어서 동일 경로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중화군 호적과 같이 이들 기타 호적 중에는 일본인 연구자가 수집해서 그 후 도서관 등에 기증된 것이 명백한 자료도 있다. 狩野 이외의 인물을 들면 다음과 같다. 책 수를 보면 본격적인 호적 연구를 위하여 수집한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東京帝國大學教授. 일본사.

6) 荻野由之 「韓國旅行談」(『東洋時報』 140호, 1910년) 26쪽.

7) 白鳥庫吉 「訪書談」 『白鳥庫吉全集』 第10권, 1971년(1910년의 강연 원고).  
「白鳥博士の朝鮮珍書蒐集」 『史學雜誌』 20-2, 1909년.

8) 전게 武田幸男 『學習院大學藏朝鮮戶籍大帳の基礎的研究』 3~4쪽.

幣原坦 (Shidehara Taira, 1870-1953)<sup>9)</sup> : 東洋文庫

개성부 호적표(1900년), 전라북도 전주군호적표(1901년)

河合弘民 (Kawai Hirotami, 1874-1918)<sup>10)</sup> : 京都大學附屬圖書館 河合文庫

충청도 충주통기 2책 ( ? )

今西龍 (Imanishi Ryu, 1875-1932)<sup>11)</sup> : 天理大學附屬天理圖書館

경상도 창원부호적(1834년), 충청남도 태안군 호적표(1905년)<sup>12)</sup>,

강원도 양구군 호적표(1905년)

三浦新七 (Miura Shinshichi, 1877-1947)<sup>13)</sup>: 一橋大學附屬圖書館 三浦文庫

강원도 이천군호적표(1907년)

#### 4. 맺음말

이상 간략하게 일본 소재 한국호적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정리했다. 한국 호적자료의 일본으로의 유출/유입은 20세기 초를 중심으로 한다. 이 유출/유입은 통감부 통치와 민적법(民籍法) 시행 (호구조사규칙 폐지) 등을 배경으로 진행됐다고 보인다. 그러나 시기적, 지역적으로 너무 단편적인 호적 잔존 상황에서 판단할 때 호적에 초점을 둔 체계적인 수집 활동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대한제국기, 특히 1906년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관청의 문서·기록 관리에 관한 연구와 연결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9) 韓國學部學政參與官, 臺北帝國大學初代學長. 한국사.

10) 東洋協會專門學校京城分校教頭. 한국경제사.

11) 京城帝國大學教授(겸 京都帝國大學教授). 한국사.

12) 京都大총합박물관에 같은 1905년의 태안군 통표와 승적이 있다. 경도대학과 동일한 경로로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13) 東京商科大學學長. 西歐文化史.

2 주 제

## 19세기 후반 『靑山鎭丙子戶籍』과 섬 주민들의 생활양상

김 경 옥(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교수)



## 19세기 후반 『靑山鎮丙子戶籍』과 섬 주민들의 생활양상\*

김경옥\*\*

### 목 차

1. 머리말
2. 靑山鎮의 설치배경과 위상변화
3. 『靑山鎮丙子戶籍』의 편제와 내용
4. 靑山鎮 소속 섬 주민들의 생활상
5. 맺음말

### 1. 머리말

섬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을 화두 삼아 필자는 오랫동안 섬 답사에 참여해왔다. 섬 답사의 어려움은 풍랑으로 가로 막힌 교통수단, 물때를 알지 못하여 실패했던 제보자 섭외, 육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島嶼文化에 대한 편견 등등 섬을 찾는 횡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난관은 섬 주민들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기록문화의 부재였다. 더욱이 ‘섬’에서 수집·발굴된 자료는 문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생략된 채 마치 낱장의 고문서처럼 선뜻 키워드를 던져주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섬 관련 문서들이 퍼즐을 꽤 맞추듯 하나씩 제 모습을 드러냈지만, 도서지역 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아마도 그동안 역사연구에 활용했던 자료들이 대부분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연대기이거나, 혹은

\* 이 논문은 2009년(정부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61-A0007).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양반 사대부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촌락문서에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섬 답사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문서 뭉치를 발견하거나, 혹은 겹표지가 비단으로 포장된 성책고문서를 접할 때, 혹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전래 문서를 선뜻 대여해줄 때 연구자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얻는다. 1991년 청산도 섬 답사에서 필자가 발굴한 『靑山鎭丙子戶籍』(이하 『靑山鎭戶籍』이라 약칭함)이 그러했다. 대체로 섬 답사에 임할 때 연구자들은 해당 섬의 역사와 문화를 상기하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선정한다. 그러나 당시 필자의 섬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였기 때문에 도서관화 자체가 새로운 문화체험이었다. 섬 문화에 대한 필자의 인식이 매우 일천했던 시절이었다.<sup>2)</sup> 그해 6월, 청산도 읍리마을을 방문하였을 때 문득 성책고문서 1책이 필자에게 주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미리 예약되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이 자료는 청산도 수군진에 소속된 섬 주민들의 호구기록을 한데 모아놓은 호적대장이었다. 그동안 역사 교재에서 글로만 접해왔던 호적대장을 섬마을에서 원형을 접하게 된 것이다. 청산진 호적대장은 초보 섬 연구자에게 주어진 큰 행운이었다.

이 글은 19세기 말엽 전라도 강진군 청산진에서 작성한 호적대장을 소개하고, 당대 청산진 소속 섬마을 주민들의 생활상을 재구성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조선후기 청산도에 왜 수군진이 설치되었는지, 청산진에서 작성한 호적대장에는 주민들의 어떤 정보가 담겨있는지, 청산진 소속 섬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청산도 관련 기존 연구 성과로는 1991년에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에서 주최한 하계공동학술답사 청산도 편 연구결과물을 수록해 놓은 『도서문화』(9집, 1991)와 한국도서학회에서 2007년에 간행한 『한국도서연구』(19-2호, 2007)에 종합 정리되어있다. 이들 논문집에는 청산도 주민들의 이주와 정착, 사회구조, 농업환경, 종교, 민가, 생업도구, 구비문학, 방언, 관광자원, 수산업, 어촌계, 어장, 파시, 식물·식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 성과가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 『청산진호적대장』을 분석한 연구로, 이명현의 「조선후기 완도 청산진의 치폐와 그 배경」(목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이 참고 된다. 최근 들어 청산도가 관광 활성화로 주목받으면서 섬 주민의 경제생활과 섬 관광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예컨대 조영재 외, 「청산도 구들장논의 분포와 물리적 구조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18, 한국농촌계획학회, 2012; 한지숙 외, 「슬로시티 매력 분석 : 청산도를 중심으로」, 『관광연구』25-2, 대한관광경영학회, 2010; 조진상,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섬관광 발전전략의 모색: 완도군 청산도 방문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21-4, 한국지역개발학회, 2009 등이 발표되었다.

## 2. 靑山鎮의 설치배경과 위상변화

### 1) 1681년 萬戶鎮으로 設鎮論議

임진~정유년간 7년 전쟁 이후 일본 왜구들은 끊임없이 서남해역에 출몰하였다. 이들을 방비하기 위해 내륙 깊숙이 입지하고 있던 수군이 점차 연해지역으로 전진 배치 되었다. 일례로 통제사 이순신은 전라도 나주목 보화도(현 고하도)에서 주둔하고 있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강진현 고금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였고, 전라우도 수군절도사 김억추는 고금도·완도·조약도·청산도 일대의 바닷길을 수시로 관망한 후 남해에 출몰하는 왜구에 대한 방비책을 상부에 보고하였다.<sup>3)</sup>

이러한 서남해역에 수군진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조선 숙종 때이다. 숙종 7년(1681)에 閔維重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삼남 연해의 각 고을에 戰船을 배치하는 일은 원래 古制가 아닌데,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단지 物力만 허비하고, 완급에 쓸 만한 가망이 없습니다. 臣은 연해의 여러 섬 가운데 요해처에 邊將과 戰船을 배치하고, 각 고을의 전선은 마땅히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에는 古今靑山 두 섬이 있는데,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이 많기 때문에, 통제사 李舜臣과 명나라 장수 陳璘이 주둔하였던 곳입니다. 고금도는 땅이 크니 僉使를 파견하고, 靑山島는 조금 작으니 마땅히 萬戶를 파견하십시오. 동시에 戰船 2척씩을 파견하되, 能櫓軍·射砲手를 모두 섬 주민으로 충당한다면, 연해의 방비가 가장 착실해질 것이고, 조정에서는 수군 배치로 인한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양 섬 이외에 수군진을 설치하기에 합당한 곳이 많지만, 일시에 모두 거행할 수 없으니, 먼저 양 섬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 그 성과를 살핀 연후에 차례대로 설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sup>4)</sup>

이렇듯 조선 숙종 때 중앙관료들은 서남해역에 대한 방비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꺼번에 여러 개의 수군진을 설치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 우선 시험적으로 僉使鎮과 萬戶鎮을 운영해 본 다음에 수군진을 증설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숙종 7년(1681)에 강진현 고금도에 첨사진이 설치되었고, 청산도에 만호진이 신설되었다.

숙종 때 민유중은 왜 서남해역의 무수히 많은 섬 가운데 고금·청산도를 시범 사례로 선정하였을까? 바로 고금·청산도 해역은 일본 왜적들이 자주 출몰했던 海路

3) 『宣祖實錄』 권98, 선조 31년 3월 18일 계묘; 『宣祖實錄』 권124, 선조 33년 4월 4일 정축.

4) 『肅宗實錄』 권11, 숙종 7년 1월 3일 정사.

였다. 이러한 정황은 조선 선조 때 좌의정 李恒福의 왜적 방비책에서 확인된다. 그가 말한 왜적들의 이동항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왜적이 우리나라 해역을 침입해오는 바닷길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五島에서 동남풍을 타고 三島를 경유하여 우리나라 仙山島를 지나 곧바로 古今島와 加里浦(현 莞島)로 도달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대마도에서 동북풍을 타고 蓮花島와 浴知島 사이에 이르러 유숙한 후에 南海의 彌助項과 防踏(현 여수) 등지로 도달하는 길입니다. 이는 왜적이 전라도로 침입하는 익숙한 바닷길로, 水路가 매우 멀어서 순한 바람을 만나도 모두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에 도착하지 못하니, 반드시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서 유숙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연화도와 욕지도는 바로 경상 右水營의 煙臺와 마주 바라다 보이는 섬으로, 적선이 왕래하는 숫자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왜적이 일본 오도와 삼도를 경유하여 선산도를 지나 고금도를 침범하거나, 혹은 대마도 왜적이 연화도와 욕지도를 지나 남해 등지로 침범할 경우 우리에게 모두 발각될 것입니다.<sup>5)</sup>

이렇듯 고금·청산도 해역은 왜적이 전라도를 침범할 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바닷길이었다. 이런 까닭에 민유중은 남해로 출몰하는 왜적들을 방비하기 위해 고금·청산도에 수군진 설치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 전라도 강진현 고금·청산도에 첨사진과 만호진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이듬해 청산도에서 불과 100여 리 떨어진 곳에 있는 薪智島에 만호진이 새로 증설되면서 서남해역 수군진의 편제변화를 예고하였다. 이 때 고금도 첨사진은 그대로 존속하였지만, 청산도 만호진은 혁파되고 대신 別將이 파견되었으며, 신지도 만호가 청산도를 관할하게 되었다. 당시 청산도 만호진이 어떤 이유로 신지도진에 영속되었는지 그 내막은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도 신지도가 고금도와 인접해 있어서 내륙지역을 방비하는데 조금 더 용이했을 것 같다.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신지도진에 편제된 청산도에서 끊임없이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영조 47년(1771)에 제주도 사람 장한철(1744년생)의 『표해록』에서 확인된다. 장한철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중 태풍을 만나 청산도에 표착하여 한동안 청산도 주민들의 간병을 받게 되었는데, 이 때 장한철의 눈에 비친 청산도 사람들의 삶이 사뭇 제주도와 비교되었던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1) 이 섬(청산도: 필자)은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王化를 입지 못하고 있다.

5) 『宣祖實錄』 권 121, 선조 33년 1월 28일 계유.



그래서 북쪽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섬에 들어와서 작폐하는 일이 많다. 방금 梨津鎮(현 해남군 북평면)의 아전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섬에 들어왔는데, 里正을 몽둥이로 때려 쌀과 술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고, 남자 광대에게서 錢財를 탈점하고, 심지어 섬 주민들의 農牛를 빼앗아가기도 한다.<sup>6)</sup>

a-2) 이 섬은 王孫宮에 딸린 곳입니다. 궁방에서 사람을 보내 세금을 거두는데, 섬사람들은 宮差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를 ‘대감’이라 부르거나, 혹은 ‘千吏房’·‘李先達’이라 부른다. 千哥라 부르는 아전의 횡포와 교활함은 관습에 따라 죽어 마땅하고, 李哥란 자 역시 도리에 어긋나는 짓만 하고 돌아다니니, 참으로 놀랍고 통분할 노릇이다.<sup>7)</sup>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18세기 청산도 주민들은 薪智島鎮에 영속되어 있었으나, 해남지방의 아전배들이 수시로 바다를 건너와서 섬 주민들을 착취하였다. 또 청산도의 토지는 궁방전으로 편제되어 있어서 세금을 왕실세력에게 납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산도 사람들은 중앙과 지방관청에 戰船(1척)·兵船(1척)·伺候船(2척)·水船(1척) 등 선박 건조용 목재를 제공하였으며,<sup>8)</sup> 신지도 만호에게 船稅(42兩)·漁場稅(1兩 5錢)·藿稅(35兩)·海衣稅(6兩) 등을 상납하였다. 18세기 청산도 주민들의 부세·부역부담이 얼마나 막중하였는지 가히 짐작케 한다.

이러한 청산도 주민들의 사회문제는 급기야 한양에까지 알려졌다. 그것은 청산도 주민 대표 3인이 비변사를 향의 방문한 결과였다. 이러한 사실이 청산도 당리마을 초입에 위치한 「三賢碑閣」에서 확인된다.<sup>9)</sup> 비석 앞면에 ‘土人 金夢喜 參奉 金萬蓮 參奉 崔昌世 永世不忘之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 뒷면에 ‘섬주민들의 民瘼 12조를 개혁하라’는 비변사의 節目이 기술되어 있다.<sup>10)</sup> 청산도 주민 대표 3인이 비변사에 올린 狀啓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本 鎮民은 布를 납세하면서도 役은 役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右水營은 우수영대로 어로를 침해하고, 풍요로운 토지는 없는데, 10여 조항이 중첩되어 役을 부과하니, 民이 피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다가는 필시 空島가 될 것입니다. 토지를 돌려

6) 張漢喆, 『漂海錄』, 1771년 1월 8일.

7) 張漢喆, 『漂海錄』, 1771년 1월 8일.

8) 『康津縣所在延齡宮屬靑山島民役仍存革祛條件節目』, 1797년 4월, 필사본.

9) 소재지: 완도군 청산면 당리 751-1번지. 이 비각은 2005년 1월 4일에 완도군 향토유적 11호로 지정되었다.

10) 碑文에 의하면, “본래 섬 주민들이 3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三賢閣을 건립하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건물 이 허물어지자, 동치 3년(1864)에 비석을 다시 건립하였다. 그러나 이 비석도 마모됨에 따라 대정 5년(1916)에 석조로 비각을 건립하여 오늘에 이른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비문은 8행 16자이다.

주고 세금은 면제해 주십시오. 궁방의 祭需는 섬주민들의 마땅한 의무이기는 하지만 백성들이 이미 피폐하여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을 정해년(1767년: 필자)부터 기축년(1769년: 필자)까지 여러 차례 상소하였으나, 임금의 聖恩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섬주민들의 피폐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宮需의 폐단을 규찰하고, 부근 島嶼民을 침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또 黃口添丁이나 白骨徵布를 막아주시고, 族徵하는 것을 금하여 주십시오. 本道の 해당 邑鎭에 위탁하여 시행한 후 다시 비변사에 보고하도록 명하여 주십시오.<sup>11)</sup>

조선 정조 때 청산도 주민들은 당시 섬에서 발생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상급관청에 호소하였다. 예컨대 비변사 소장에 나타나 있듯이, ‘布는 布대로, 役은 役대로’라는 표현처럼 이중과세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섬 주민들은 궁방에 상납하고 있는 祭需, 黃口添丁, 白骨徵布, 族徵에 이르기까지 도서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폐단을 조목조목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산도 주민들의 항거는 비변사 관원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였다. 마침내 비변사에서 청산도 주민들에게 자행되었던 각종 폐단을 시정하라는 『절목』을 발급해 줌으로써 이중과세의 폐단이 근절되었다.

## 2) 1866년 僉使鎭으로 승격

19세기 섬 주민들의 의식전환은 청산진의 위상변화로 나타났다. 그 단초가 이조판서 이재원의 상소였다. 이재원은 문중 소유로 있던 청산도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청산진 복설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청산도는 해안 방어의 요충지이므로 반드시 비워둘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충지를 절대로 허술하게 할 수 없습니다.”<sup>12)</sup>라고 하면서 청산진 복설을 거듭 상소하였다. 그리하여 고종 3년(1866) 8월에 병조에서 “청산도에 鎭將을 파견하고 古今島·薪智島·馬島·所安島 등 4개의 수군진을 관할하라.”고 명하였다.<sup>13)</sup> 또 동년 10월에는 홍양과 영암지방의 부속도서까지 확대하여 관할하도록 하였다.<sup>14)</sup>

왜 이조판서 이재원은 청산도에 수군진 복설을 강조하였을까? 그것은 異樣船의 출몰 때문이었다. 즉 순조 16년(1816)에 영국 군함이 서해안에 출몰하여 근해를 정

11) 『康津縣所在延齡宮屬青山島民役仍存革祛條件節目』, 『備局元關』, 1797년(필사본).

12) 『高宗實錄』 권3, 고종 3년 8월 7일 기사.

13) 『高宗實錄』 권3, 고종 3년 8월 10일 병신.

14) 『高宗實錄』 권3, 고종 3년 10월 7일 임진.

탐하더니, 급기야 추자도 해역에서 불법으로 해안을 측량한 일이 있었다. 또 헌종 11년(1845)에는 영국 선박 4척이 제주도를 비롯하여 홍양·강진·장흥 등지의 부속도서를 측량하였다. 그 후 철종 5년(1854)에는 러시아 함대가 영국·프랑스 연합군의 추격을 받자 거문도에 입항한 사건이 일어났다.<sup>15)</sup>

이처럼 19세기 외국 전함들이 제주도와 추자도, 그리고 서남해역의 연안항로를 마음대로 항해하였던 것이다. 이 항로는 조선시대 왜구와 수적들이 주로 이용했던 뱃길이었기 때문에 서남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긴장하였다. 그래서 이조판서 이재원이 私財를 포기하면서까지 청산도에 해방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sup>16)</sup>

중앙정부는 이재원의 상소를 받아들여 청산도에 첨사진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청산진은 종래 상급관부였던 薪智島를 비롯하여 古今島·馬島·所安島 등 4개의 수군진과 홍양의 부속도서를 관할하게 되었다.<sup>17)</sup> 또 중앙정부는 서남해역 수군진의 변통을 위해 호조로 하여금 청산진 운영기금 5,000兩을 지원해주었다.<sup>18)</sup> 또 고종 4년(1867)에는 의정부에서 청산진 관아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목재를 지원해주었다. 그런가하면 전라도 사람들도 적극 동참하였는데, 前 僉使 趙載升은 鎭堡를 새로 세우고 진영을 건축하는데 직접 흙판과 삼을 들고 진두지휘하였고, 僉使 洪圭는 자신의 녹봉을 기부하고 재물을 모아 관청 건물과 무기를 구비하는데 기여하였다. 고종 5년(1868)에 전라감사 徐相鼎이 이러한 정황을 중앙에 보고하였고, 이 사실을 보고 받은 高宗은 “이 진영은 바다 관문의 요충지에 있는데, 몇 백 년 동안 비워둔 채 버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진영을 설치하여 공사가 모두 끝났다고 하니, 아주 기쁘고 다행스럽다.”라고 하면서 靑山鎭 僉使 洪圭를 防禦使로 임명하였다.<sup>19)</sup>

19세기 말엽 『湖南鎭誌』에 의하면, 청산진의 부대시설로 客舍·東軒·內衙·冊室·官廳·軍官廳·鎭撫廳·使令廳·官奴廳·軍器庫·帳籍庫·捧稅庫·開門樓 등이 있었으며,<sup>20)</sup> 구성인원은 兵校(1)·戰船代將(1)·搜討兼禁松監官(1)·執事(1)·旗牌官兼軍器監(1)·下番軍官(15)·鎭撫(20)·吏房(1)·戶房(1)·禮房兼官廳色(1)·兵房色(1)·刑吏(3)·搜討兼禁松色(1)·工房兼均役軍器色(3)·承發兼戰船色(1)·下番鎭撫

15) 이명현, 앞의 논문, 2000, 43쪽.

16) 김경옥, 앞의 논문, 2007, 12~13쪽.

17) 『高宗實錄』 권3, 고종 3년 8월 10일 병신 : 『高宗實錄』 권3, 고종 3년 10월 7일 임진.

18) 『高宗實錄』 권3, 고종 3년 11월 28일 계미.

19) 『高宗實錄』 권5, 고종 5년 3월 3일 신해.

20) 『湖南鎭誌』 「靑山鎭誌及事例成冊」, 서울대奎12188.

(11)·通引(3)·官奴(3)·幫子(1)·別砲軍(30) 등 약 106명과 軍額 약 500명으로 확인된다.<sup>21)</sup> 이렇듯 19세기 청산진은 남해를 방비하는 관문으로써 그 위상을 정립하였다.

### 3. 『靑山鎮丙子戶籍』(1876)의 편제와 내용

#### 1) 『청산진병자호적』의 편제

1866년 청산도에 僉使鎭이 복설됨에 따라 서남해 도서지역의 행정편제가 재정비되었다. 수군진은 대소에 따라 主鎭·巨鎭·諸鎭<sup>22)</sup> 등 상·하급으로 편제되고, 동시에 내륙지방 郡縣에 영속되는 이중구조로 운영되었다. 조선시대 청산도의 경우, 전라도 강진현의 부속도서로 17세기 말엽에 만호진이 창설되었다가, 19세기 말엽에 僉使鎭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섬이라는 입지환경으로 인해 청산도 주민들의 행정 및 민원 업무는 鎭將이 담당하였다.<sup>23)</sup> 결국 조선시대의 수군진은 표면적으로는 해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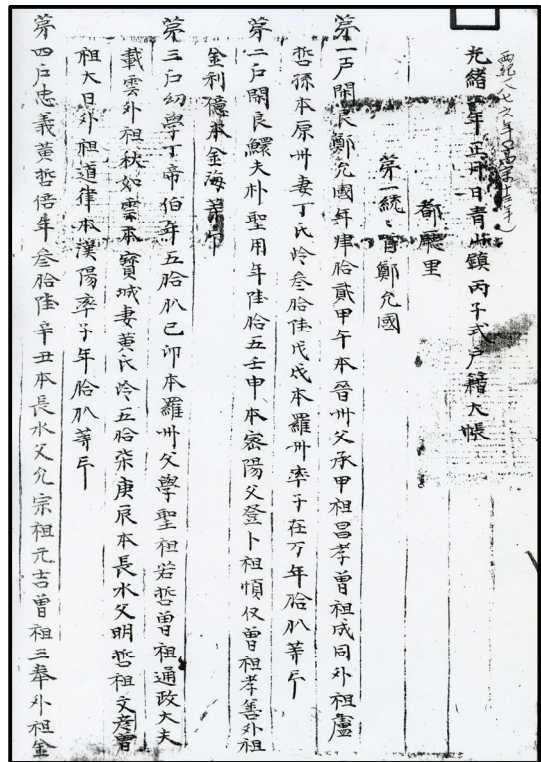


그림 2. 『청산진호적』(내표지)

21) 『高宗實錄』 권11, 고종 11년 1월 21일 을유.

22) 조선시대의 關防施設로 먼저 萬戶가 파견되어 兵馬都節制使 밑에서 국방을 담당하였다. 즉 침입해 오는 적을 제일선에서 막도록 책임지는 것이 만호의 임무였다. 그러다가 첨절제사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모든 鎭의 소재지나 부근 邑의 都護府使縣令縣監 등 수령직을 겸직하였다. 첨절제사가 鎭에 파견됨으로써 연해지역의 방어망은 훨씬 강화되었다. 세조 3년(1457)의 鎭管體制는 <監司·兵使(主鎭)→鎭管節制使(巨鎭)→同僉節制使 및 都尉(諸鎭)> 등으로 편제되었다. 그 후 15세기 후반에 이르면 鎭管體制는 내륙에 巨鎭이 편성되고, 沿海 島嶼에는 대개 諸鎭이 편제되었다. 또 16세기 초에 兵馬都節制使가 파견되면서 營鎭으로 개편되었다. 종전의 巨鎭 대신 營을 중심으로 하여 방위조직이 재편되었던 것이다(김경옥, 『조선후기 도서연구』, 해안, 2004, 181~182쪽).

23) 조선후기 수군진의 기능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사례연구를 검토하였다. 사례연구로 김경옥, 「17~18세기 荏子島鎭의 설치와 목장의 개간」, 『도서문화』2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4; 김경옥, 「조선후기 古群山鎭의 설치와 운영」, 『지방사와 지방문화』10-1, 역사문화연구회, 2007; 김경옥, 「조선후기 靑山島 주민들의 입도와 수군진의 설치」, 『한국도서연구』19-2, 한국도서연구회, 2007; 김경옥, 「16~17세기 古今島 인근 해로와 수군진의 설치」, 『도서문화』33,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9 등이 있다.

어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섬 주민들의 말단 행정기구로써 기능하였다. 이런 까닭에 19세기 말엽 청산진이 있었던 당리마을에서 『청산진호적』이 발굴되었던 것이다.

이 자료는 19세기 말엽 청산진에서 관할하던 섬 주민들의 戶口 기록을 한데 모아 놓은 호적대장이다. 『청산진호적』은 필사본으로, 총 182면이다. 크기는 가로 25cm, 세로 43cm이며, 11행 30자이다. 표제명은 ‘靑山鎮丙子戶籍’이며, 내표지에 ‘光緒 2年(1876) 正月 日 靑山鎮丙子式戶籍大帳’이라 기재되어있다. 수록 내용은 첫째 줄에 ‘都廳里’라는 지명이 있고, 그 다음 줄에 소위 ‘五家作統’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1統을 단위로 나열되어 있다.<sup>24)</sup>

『청산진호적』은 청산도 읍리마을 제주양씨의 입도유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족보와 함께 발견되었다. 제주양씨가 청산도에 정착한 것은 17세기 중엽이다. 제주양씨 청산도 입도조는 梁之澗(1648년생)로 확인된다. 제주양씨는 본래 전라도 해남(어란)에서 살다가 양지민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부인 忠州池氏가 아들 梁順喆(1670~1705)을 데리고 청산도 읍리로 입도하여 정착한 것으로 확인된다.<sup>25)</sup> 『청산진호적』은 梁○麟(1856년~1942)이 소장하고 있다가 그의 아들과 손자에게 전승된 것이다.

『청산진호적』의 편제는 가장 먼저 本鎮에 해당하는 청산도 주민들의 호구기록이 都廳里, 佛目里, 道樂里, 堂里, 邑里, 陳山里, 菊花里, 池口味, 東村, 射亭里, 淸溪里, 舊城里, 復興里, 陽地里, 中興里, 新興里, 海衣里, 洞里, 新豐里 등 총 19개 행정리별로 호구기록이 기술되어 있다. 그 다음 청산도의 부속도서인 麗瑞島, 그리고 所安島와 소안도의 부속도서인 者只島와 橫看島 주민들의 호구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문서 말미에 본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호주의 직역을 세분하여 해당 인원이 정리되어있다.

## 2) 『청산진병자호적』의 수록 내용

### (1) 행정리와 부속도서

1866년 청산진이 복설되자, 중앙정부는 청산진 첨사로 하여금 薪智島・古今島・馬島・所安島 등 4개의 수군진과 홍양의 부속도서를 관장하도록 명하고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sup>26)</sup>

24) 『청산진호적』의 작성 규칙은 오가작통법을 기본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호를 오가작통에 맞춰 기재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청산도 도청리는 12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통에 6호가 수록되어 있었다. 반면 소안도 동관리는 6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통의 호수는 2호로 구성되어 있었다(본고 <표1> 참조).

25) 『濟州梁氏家乘』(목판본).

26) 각주 16) 참조.

그런데 청산진이 복설된 지 10년이 지난 1876년에 『청산진호적』에는 靑山島・麗瑞島・所安島・者只島・橫看島 등이 수록되어 있었다. 앞서 첨사진에서 관할하였던 薪智島・古今島・馬島・所安島 가운데 신지도를 제외한 3섬에 관한 호구 기록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3섬이 청산진의 관할구역이긴 하지만, 각각 섬마다 수군만호가 파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3鎭 관련 호구기록은 청산진에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27)</sup> 다만 소안도의 경우 17세기에 해남 梨津鎭에 만호가 파견될 때 소안도는 만호 대신 別將이 파견되었다. 이런 까닭에 1876년 청산진에서 호구기록을 조사할 때 3鎭(薪智島・古今島・馬島)을 제외한 별장진이었던 소안도만 『청산진호적』에 등록된 것이다. 따라서 『청산진호적』은 청산도와 청산도의 부속도서인 여서도, 여기에 소안도와 소안도의 부속도서인 자지도와 횡간도만 등록된 것이다. 『청산진호적』에 등재된 호구 현황을 도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7) 이 가운데 馬導는 첨사진 복설 당시 관할 지휘권을 갖고 있었으나, 훗날 珍島로 이속되었다. 반면 소안도는 조선 고종 때 소안도 비자리에 別將을 파견하여 섬주민들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866년 10월에 청산도에 첨사진이 복설될 당시 4鎭(고금도・신지도・마도・소안도)에 대해 靑山鎭將이 관장하였다. 그 후 1876년에 고금도・신지도・마도를 제외한 소안도는 청산진 수군첨사가 관장하였다. 따라서 소안도 구성원들의 『청산진호적』(1876)에 등록된 것이다.

&lt;표1&gt; 『청산진호적』에 등재된 도서별·리별 통수 (\* 누락 혹은 추가 호수를 표기한 것임)

島嶼	里(統數)				합계
靑山島	都廳里(12) *12統+ 1戶	佛日里(3) *3統-2戶	道樂里(4)	堂里(9)	112통 551호
	呂里(9) *9統+ 1戶	陳山里(3) *3統-3戶	菊花里(2)	池口味(8) *8統-1戶	
	東村(9) *9統-2戶	射亭里(6) *6統-2戶	清溪里(7) *7統+ 1戶	舊城里(1)	
	復興里(3) *3統-1戶	陽地里(2)	中興里(3) *3統-2戶	新興里(5) *5統+ 1戶	
	海衣里(1) *1統+ 2戶	洞里(5)	新豐里(3)	95통 468호	
麗瑞島	麗瑞島(17) *17統-2戶			17통 83호	
所安島	榧子東里(7) *7統-3戶	榧子西里(8)	東陳山里(7)	美羅里(8) *8統-1戶	70통 337호
	美浦里(2)	新興里(1) *1統-2戶	月項里(4) *4統+ 1戶	西珍山(4) *4統+ 1戶	
	梨木里(6) *6統-2戶	東官里(6) *6統-3戶	小陳山里(2)	北巖里(1) *1統+ 1戶	
	西官里(1) *1統+ 1戶	小仙里(1)	小官廳(1) *1統-1戶	曳下里(2) *2統-2戶	
	孟仙里(3) *3統-1戶			64통 309호	
者只島	者只島(2) *2統+ 2戶			2통 12호	
橫看島	橫看島(4) *2統 낙장 *4統-4戶			4통 16호	

위의 <표1>에서 보듯이, 청산진 소속 행정리는 靑山島(19), 麗瑞島(1), 所安島(17), 者只島(1), 橫看島(1) 등으로 확인된다. 1876년 청산진은 39里, 182統, 888戶로 추산된다.

## (2) 호구와 인구

조선시대의 호적 작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방침은 1戶 1口의 누락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호적은 곧 부세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인식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다만 19세기 말엽 『청산진호적』의 통계를 통해 도서지역의 인구와 호구의 실태를 재해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위의 <표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산진 소속 도서별 호구 수는 靑山島(468), 麗瑞島(83), 所安島(309), 者只島(12), 橫看島(16) 등 총 888호로 확인된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는 역대 청산도 관련 호구기록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할 것 같다. 다음 <표2>는 18~19세기 청산도 관련 문헌에서 호구와 인구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2> 18-19세기 靑山島의 호구와 인구<sup>28)</sup>

년대	호구	인구			전거
		남	여	계	
영조35년(1759)	428(靑山島)	591	761	1,352	『輿地圖書』 「康津縣」
정조13년(1789)	490 (靑山島+ 麗瑞島)	749	827	1,576	『戶口總數』 「康津」
고종13년(1876)	551(靑山島) 337(所安島)				『靑山鎮戶籍』
고종32년(1895)	460(靑山島) 81(麗瑞島) 346(所安島)	1,465	1,150	2,615	『湖南鎮誌』 「靑山島鎮誌」

위의 <표2>에서 보듯이, 조선 영조 때 작성된 『輿地圖書』에 청산도의 호구수는 428호 1,352명으로 확인된다. 이후 정조 때 500호 1,576명, 그리고 고종대에 이르면 약 500~800호 2,615명으로 추산된다. 다시 말해서 18세기 청산도는 약 500호, 약 1,500명으로 추산된 반면, 19세기의 청산도는 약 900호, 약 2,600명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수치는 청산도가 絶島라는 입지환경, 鎭將에 의해 정리된 인구정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섬주민이 중앙정부에 보고한 수치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 다음은 정조 21년(1797)에 청산도 주민 대표 3인방이 비변사에 올린 呈狀과 營門의 보고 내용이다.

b-1) 청산도는 흉년이 계속되어 섬주민이 크게 감소하였다. 과거의 700호가 오늘날에는 300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軍保와 作隊軍이 총 687명이 배정되어 殘餘戶 300호가 이를 충당하다보니 疊徵을 피할 수 없다. 이 가운데 섬 주민들이 495명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邑鎭에서 충당토록 할 것.<sup>29)</sup>

28) 김경옥, 앞의 논문, 2004, 206쪽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29) 『康津縣所在延齡宮屬靑山島民役仍存革祛條件節目』, 「革祛秩」, 1797년(필사본).



b-2) 청산도의 토지는 70년전(1727년:필자) 宮房에 영속된 관계로 役을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水軍을 배정한 것은 남쪽 바다를 방어하기 위함이고, 추가로 役을 배정하지 않았다. … 20년 전(1777년: 필자) 島民에게 軍保 687명을 배정하였는데, 이것은 本島 700여 戶의 전성기 때의 役이다. 오늘날 세금은 과거의 규정인즉 납세의무는 300여 殘餘戶가 담당하고 있는 고로, 결시자가 222명에 달하여 납세의 폐단이 발생한 것이다.<sup>30)</sup>

위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섬 주민들은 1727년경 청산도가 최전성기였을 때 호구수가 약 700호였고, 1797년경 청산도 주민들이 피폐해진 결과 300여 호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섬사람들이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경한 점을 감안해 볼 때 18~19세기 청산도 주민들은 많게는 700여 호, 적게는 300여 호 정도로 추산된다. 이로부터 80년이 지난 1876년도 『청산진호적』에 등재된 호구 수는 청산도 551호, 소안도 337호이고, 또 20년이 지난 1895년에 莞島郡이 창설될 때 약 888호(청산도 551호, 소안도 337호)로 확인된다.

### (3) 주요 성씨

청산진 소속 주민들의 주요 성씨를 보겠다. 과연 누가 언제 어디에 정착하였을까? 도서지역도 육지처럼 동성마을이 형성되었을까? 다음 <표3>은 『청산진호적』에 등재된 호주의 본관을 성씨별·마을별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3> 1876년 청산도 사람들의 성씨별·마을별 추이<sup>31)</sup>

구분	都廳	佛目	道樂	堂里	呂里	陳山	菊花	池口	東村	射亭	清溪	舊城	復興	陽地	中興	新興	海衣	洞里	新豐	麗瑞	합계
金海金	9	8	9	6	9	1	1	23	4		1	5	2	1	1	15	2	11	4	32	144
慶州鄭		1		11	12			1	6							1				8	40
草溪崔	2		1	15	1	1								4		1				6	31
彦陽金	6				3	1		3		4					4	2		4		3	30
慶州李			1	3		1		3		1	15			1						2	27
密陽朴	5		1	3	2			2		6	2					1				4	26
羅州林						6				13			2							1	22
忠州池	1								1		14					1			1	3	21
晉州姜	2		1							2						1	2		9	2	19
延安車		1			1	1			5						2	4	2	1		1	18

30) 『康津縣所在延齡宮屬靑山島民役仍存革祛條件節目』, 『營門報辭』, 1797년(필사본).

31) <표3>은 이명현의 앞의 논문, 13~14쪽을 재인용한 것이다.

구분	都廳	佛目	道樂	堂里	呂里	陳山	菊花	池口	東村	射亭	清溪	舊城	復興	陽地	中興	新興	海衣	洞里	新豐	麗瑞	합계
安東權	1								11					1	2			1			16
全州李	2	1		1							2		1	1	2					5	15
長興魏	1					1	8	1							2						13
濟州梁					10						1									1	12
咸陽朴					1				1	1			8								11
晉州鄭	2								8												10
玄風郭	9			1																	10
羅州丁	8																				8
江陵劉			6					1					1								8
清州韓		1		1					2											2	6
全州秋	1							1												4	6
務安朴									2									3			5
密陽金																				5	5
長水黃	4																				4
漢陽趙	1				3																4
同福吳	1			1					1												3
昌原黃	1			1			1														3
耽津崔	1								1											1	3
平山申	1				1															1	3
慶州裴	2																				2
全州崔	1				1																2
利川徐				1	1																2
咸安趙																		2			2
南平文										1										1	2
咸陽趙																		1		1	2
密陽孫		1																			1
江陵裴			1																		1
忠州韓				1																	1
仁同張					1																1
光山金								1													1
海南尹								1													1
竹山安								1													1
達城韓								1													1
靈光金									1												1
晉州池											1										1
晉州李														1							1

구분	都廳	佛目	道樂	堂里	呂里	陳山	菊花	池口	東村	射亭	清溪	舊城	復興	陽地	中興	新興	海衣	洞里	新豐	麗瑞	합계
海南陳														1							1
濟州高																	1				1
彦陽趙																		1			1
全州金																		1			1
晉州金																			1		1
합계	61	13	20	45	46	12	10	39	43	28	36	5	14	10	13	26	7	25	15	83	551

위의 <표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산도를 대표하는 성씨는 김해김, 경주정, 초계최, 언양김, 경주이, 밀양박, 나주임, 충주지씨 순으로 확인된다. 이들이 정착한 마을은 김해김씨가 池口味, 경주정씨는 堂里·呂里, 경주이씨는 淸溪里, 나주임씨 射亭, 충주지씨는 청계리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과연 언제 청산도에 정착한 것일까? 각 성씨별 입도유래를 살펴보면, 먼저 김해김씨는 삼현과와 사군과 두 계보가 확인되는데, 삼현과 입도조는 金顯三(1532년생)으로, 강진에서 살다가 1600년경 부흥리에 정착하였으며, 사군과 입도조는 金顯龍(1647~1660)으로 영암(서호)에서 池口味(현 池里)로 입도하였다.<sup>32)</sup> 다음 경주정씨 문헌공과 입도조는 鄭康(1628~1651)으로 전라도 남원에서 살다가 1670년경에 청산도 동촌으로 입도하였다.<sup>33)</sup> 경주이씨(오촌공과) 청산도 입도조는 李錫稷(1719~1798)·李錫同(1720~1798)·李錫命(1721~1803)으로 3형제가 충청도 진천에서 신개척지를 찾아 청산도 청계리로 입도하였다.<sup>34)</sup> 또 나주임씨 羅昌鎭(1724~1770)이 나주 회진에서 살았는데, 1751년경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 장흥위씨를 모시고 청산도 射亭마을로 입도하였다.<sup>35)</sup> 이렇듯 청산도 사람들의 입도유래를 족보와 구전을 통해 확인한 결과 17세기에 김해김씨와 경주정씨가 부흥과 동촌에 정착하였고, 18세기에 경주이씨가 청계마을, 나주임씨가 사정마을에 각각 정착한 것으로 확인된다. 흥미로운 것은 『청산진호적』(1876)에 등재된 지구미(현 池里) 사람들의 호구기록이다. 지구미마을은 총 8統으로 편제되어 있고, 이 가운데 4통(統首 장흥위씨)과 7통(統首 초계최씨)을 제외하고 모두 金氏가 統首로 등 록되어 있었다. 등재 인원은 8통이 4호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39호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김해김씨가 24호(61.5%)를 점유하고, 나머지가 他姓이었다(본고 <표1> 참조). 이로써 보건대 17~18세기 『족보』를 통한 청산도 사람들의 성씨별 입도유래와

32) 『金海金氏三賢派家乘譜』, 戊辰譜; 제보자(김갑도, 완도군 청산면 부흥리 거주).

33) 제보자: 정광식(완도군 청산면 동촌리 거주).

34) 『慶州李氏世譜』(3권, 1988년; 제보자(이정섭, 완도군 청산면 청계리 거주).

35) 제보자: 임창필(완도군 청산면 진산리 거주).

19세기 『청산진호적』에 등록된 주민들의 성씨별 추이가 대동소이하였다. 특히 섬마을에서 동성동본이 한 마을에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룬 사례를 확인하였다.

#### (4) 신분과 직역

『청산진호적』을 통해본 섬주민들의 신분과 직역에 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산진호적』 자료 말미에 청산진 소속 호주의 직역과 신분이 통계 처리되어있다. 이를 토대로 청산도 사람들의 각 마을별 호주의 직역을 구분해 보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戶主의 직역별·마을별 추이<sup>36)</sup>

마을 직역	都廳里	佛目里	道樂里	堂里	邑里	陳山里	菊花里	池口味	東村	射亭里	清溪里	舊城里	復興里	陽地里	中興里	新興里	海衣里	洞里	新豐里	麗瑞島	計
閑良	26	10	14	32	27	8	2	15	23	27	34	5	7	7	1	17	6	12	12	39	324
幼學	27		3	9	17	4	8	24	16	1	2		7	3	11	8	1	12	3	32	188
良人	2	3	2	1	1				2											4	15
童蒙					1															2	3
贈職			1	2					2												5
族親衛																					0
進上軍																				3	3
巫	2			1																	3
才人																1				1	2
忠義	4														1			1			6
기타																				2	2
計	61	13	20	45	46	12	10	39	43	28	36	5	14	10	13	26	7	25	15	83	551

위의 <표4>에서 보듯이, 청산도 주민 총 551호 가운데 한량이 324호(58.8%)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유학이 188호(34.1%)로, 섬주민 92.9%가 한량과 유학층에 해당되었다. 또 양인은 15호로 약 2.7%에 불과하였다. 특히 한량은 당리와 청계리에서 강세를 보였고, 유학은 도청리와 지구미(현 지리)에서 다수를 점유하고 있었다. 결국 『청산진호적』이 국역 부과를 목적으로 작성된 기록이라는 사실을 실감케 한다.

36) <표4>는 이명현의 앞의 논문, 15쪽을 재인용한 것이다.

#### 4. 靑山鎮 소속 섬주민들의 생활상

##### 1) 토지 간척: 구들장논

조선시대 도서지역의 토지는 간척을 통해 만들어졌다.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갯벌 위에 제방을 쌓고 바닷물을 차단했다. 제방 안에 금세 땅이 모습을 드러내지만, 바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 좋은 흙을 수없이 개토한 연후에 농토로 이용할 수 있었다. 짚물이 빠지는 데 족히 10년이 소요되었다.<sup>37)</sup> 섬 주민들에게 있어서 경작지는 곧 생명줄이다. 섬 주민들은 육지 사람들처럼 땅을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하기보다 자급자족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땅을 만들었다. 어떤 이는 이 산과 저 산을 이어주는 제방을 쌓아 간척지를 조성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야산에 불을 피워 잡목을 제거한 다음 밭을 일구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 수군들이 주둔하였던 둔전을 일구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장터를 개간하여 농토로 만들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섬마을 바닷가에 농경지가 조성되었다.

그런데 정작 전답을 만들어 놓은 다음의 문제는 농경수의 확보였다. 섬에서 농경수를 얻는 일은 더욱 어려운 관문이었다. 제방을 쌓고 산록에 화전을 일구는 일은 농부의 노동력으로 가능하지만, 섬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늘이 내려주는 빗물 뿐이었다. 이 전답을 天水畓이라 부른다.<sup>38)</sup>

그런데 청산도 사람들의 토지간척 방식은 일반 섬들과 다르다. 앞서 도서지역의 농경지가 목장·둔전·송전·화전, 그리고 갯벌을 이용하여 조성되었다면, 청산도는 구들장으로 논을 만들었다. 구들장논<sup>39)</sup>은 산비탈 경사진 곳에 온돌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농토를 말한다. 산비탈은 경사로 인해 농사일이 힘들지만 그보다 더 큰 고역은 농경수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저수시설이 없으니, 농경수를 미리 확보할 수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내린 빗물은 산록을 따라 지하로 흘러내려갔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농토가 구들장논이다. 청산도 주민들의 구전에 의하면, 입도조들이 산비탈의 좁은 공간에 구들장을 이용하여 소규모 전답을 만들었다고 한다.

구들장논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지하에 농경수를 배출할 수 있는 水口를 만든다. 농경수는 지나치게 부족해도 문제이지만, 너무 많아도 역시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수구는 큰 돌을 상하로 엮어서 농경수가 빠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구의 크기는

37) 한국고문서학회 편,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역사비평사, 2013, 172~173쪽.

38) 김경욱, 「섬사람들이 만든 구들장논」, 도서문화연구원과 함께 하는 남도 섬 이야기, 아트 플러스, 2014. 4. 30. 무등일보 기고문.

39) 청산도 구들장논은 2013년 1월 22일에 대한민국 농림수산물부에서 ‘국가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하였으며, 2014년 4월 12일에 청산도 구들장논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사람이 들고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일 만큼 크고 넓다. 수구 위에 큰 돌을 평평하게 놓아 층위를 이룬 다음, 그 위에 진흙과 작은 돌을 혼합하여 또 하나의 층위를 만든다. 큰 돌 사이의 틈새는 작은 돌과 진흙이 비집고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하늘이 내려준 농경수가 그대로 지하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즉 큰 돌 틈을 작은-돌이 메우고, 그 위의 작은 틈새는 진흙으로 채웠다. 인공 전답은 좋은 흙으로만 채울 수 없었던 섬 주민들이 자갈을 이용하여 농토를 만든 것이다. 그 다음 맨 위층은 농사에 적합한 좋은 흙으로 채웠다. 좋은 흙의 두께는 달걀 한 개의 높이만큼 쌓았다고 한다. 그러나 얇은 토층은 지력이 약했다. 그래서 섬 주민들은 땅의 지력을 돋우기 위해 인공전답에 퇴비를 제공하였다. 그나마 농우가 있는 사람은 퇴비 만드는 일이 수월했으나, 소가 없는 주민들은 인분을 섞여 최적의 퇴비를 만들어 전답에 뿌렸다고 한다. 그도 없으면 인공전답에 풀을 심어 그 풀로 하여금 퇴비 기능을 하도록 이중고를 치렀다고 한다. 구들장논은 섬 주민들의 노동력으로 만들어낸 지혜의 땅이다.

## 2) 進上과 上納

1895년 청산진 소속 주민들은 중앙과 지방관청에 토산물을 진상하거나 다양한 명목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청산진호적대장』보다 19년 후에 작성된 『靑山鎮誌』에서 확인된다. 19세기 말엽 청산도는 面里制에 따라 東面과 西面으로 구분되고, 東面に 10里, 西面に 17里 등 2면 17리로 편제되어 있었다.<sup>40)</sup>

19세기 청산진이 복설된 이후 소속 鎮民들은 봄과 가을로 나누어 년 2회 세금을 납부하였다. 즉 6월에 납부하는 세금이 秋分이고,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이 春分에 해당한다. 춘·추분은 미리 6개월 전에 발령하고, 해당 섬에서 수봉하여 곧장 水營으로 직납한 다음, 군역청에서 文記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예컨대 청산진의 進上은 2월에 이른 미역 11근 4량, 3월에 이른 미역 8근 4량 등을 보낸다. 이것은 매년 11월에 소안도와 여서도에 발령하고, 여기에 잡비를 추가하여 순영으로 보냈다.

청산진의 上納은 『靑山鎮誌』 「上納秩」에서 확인된다. 즉 靑山島 주민들은 船稅 42兩, 漁場稅 1兩 5錢, 藿稅 35兩, 海衣稅 6兩을 납부하고, 餘瑞島 주민들은 선세 44兩 5錢, 미역세 5兩, 해의세 4兩, 그리고 所安島 사람들은 선세 53兩, 미역세 51兩 4錢 8分, 어장세 2兩씩 납부하였다.<sup>41)</sup> 또 청산도 浦保 36명(代錢 46량), 여서도 浦保 14명(代

40) 『湖南鎮誌』 「靑山鎮誌及事例成冊」, 서울대奎12188.

41) 『全羅道古今島薪智島荏子島智島四鎮釐弊節目』, 1817년 10월, 서울대奎17214.

錢 28량), 소안도 浦保 48명(代錢 96량) 등은 1월에 미리 발령하여 각각 수봉한 다음, 이 가운데 이른 미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巡營에 납부하였다. 이외에 청산진에서 중앙관청에 보낸 상납 내역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다음 <표5>는 청산진이 상급관청에 상납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lt;표5&gt; 19세기 말엽 靑山鎮屬 주민들의 上納秩

상급관청	상납질
宣惠廳	大同米 3石 1斗 4升 4合 內 1石 10斗 5升 1合 6夕(청산도) 1石 5斗 9升 4合 (여서도) 馬夫色色掌米 1升 5石
廣興倉	太折米 6斗 4升 8夕 內 2斗 9升 5合 6夕(청산도) 3斗 4升 4夕(여서도) 加升米 1升 2合 8夕 貳價米 3合 2夕
軍資監	○米 2斗 6升(청산도) 加升米 5合 2夕 貳價米 1合 3夕
別營	三手糧米 18石 4斗 9升 1合 內 7石 4斗 5升 5合 4里(上納次) 2斗 5升 5合 3夕 6里(청산도) 2斗 4合 5夕(여서도) 3石 3斗(助藥島) 7石 5斗 3升 5合 4夕(소안도) 2斗 4升 7夕(海南)
禁衛營	結作米 13石 8斗 4升 9合 1夕 9里 內 5石 7斗 1升 6合 2夕 8里(청산도 加出稅) 1斗 9升 1合 5夕 2里(청산도 加出稅) 1斗 5升 3合 3夕 7里(여서도) 2石 6升(助藥島) 5石 5斗 5合 3夕 2里(소안도) 1斗 9升 2合 7夕(해남)
親軍沔營	砲糧米 15石 1斗 1升 4合 內 6石 1斗 2升 9合 2夕(청산도) 2石 1升 2合 8夕(청산도) 5石 13斗 9升 4合 8夕(소안도) 2石 10斗(조약도) 1斗 7升 4合 2夕(여서도) 3斗 3合(해남)
均役廳	結錢 45兩 2錢 4分 內

		18兩 2錢 6分(청산도) 4錢 3分(청산도) 17兩 7錢 9分(소안도) 4錢1分(해남) 8兩(조약도) 3錢 5分(여서도)
巡營	結排錢	67兩 8錢 5分 內 27兩 3錢 9分(청산도) 6錢 4分(청산도) 26兩 6錢 9分(소안도) 6錢 1分(해남) 12兩(조약도) 5錢 2分(여서도)
戶曹	田稅米 雜費	23石 10斗 7升 9合 2夕(田稅米 4斗씩 소안도) 3石 2斗 4升 3合 6夕
延齡宮房	稅米 미역 전복 해삼	338石 6斗 8升 5合 1夕(소안도) 100束(每束 5分 2里) 6貼(每貼 7錢씩) 6貼
水營	船主人稅 해삼 전복	20량(春分과 秋分에 상납) 1貼(12월 상납) 50개

위의 <표5>에서 주목되는 것은 상납질의 종류와 규모보다 청산도의 物産이다. 이는 청산진 소속 주민들의 생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엽 청산진 관할 지역으로 새롭게 조약도(현 약산도)가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조약도는 조선시대에 강진군의 부속도서로 편제되어오다가, 1896년에 완도군이 신설되면서 강진군에서 완도군으로 이속되었다. 이런 까닭에 1895년 청산진에서 조약도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청산도가 延齡宮房에 예속되어 있는 관계로, 토지세는 물론 미역·전복·해삼 등을 궁방에 상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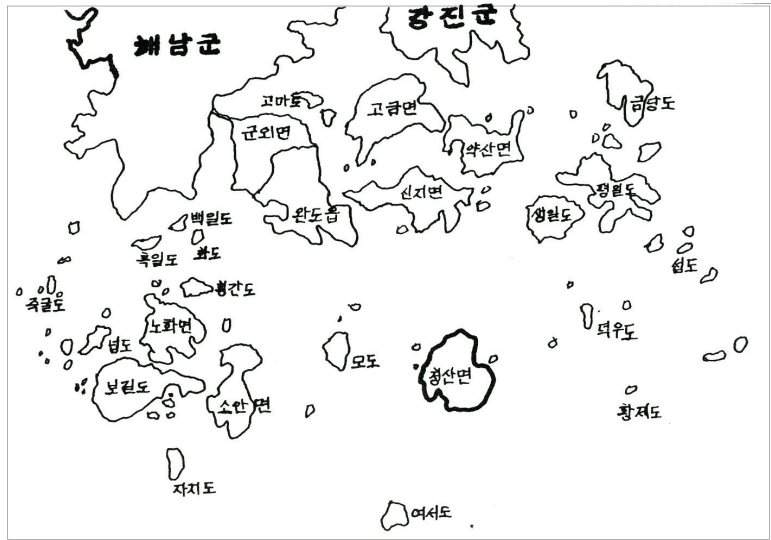
### 3) 인근 島嶼와 水路 : 風高鎭

청산도는 동서 길이가 20리, 남북의 너비 10리이다. 동쪽에 생일도·평일도가 위치하고, 남쪽으로 여서도, 서쪽으로 소안도까지 水路로 50리 거리이다. 청산도 인근 수군진으로 신지도진은 수로 50리이고, 고금도진은 수로 70리 거리에 있다. 신지도진과 고금도진을 지나면 서쪽으로 우수영까지 수로로 70리이다. 서쪽은 가리포진이 있고, 북쪽에 조약도가 있으며, 강진과 경계를 이룬다. 남쪽으로 수로로 700리 떨어진 곳에 제주도가 있고, 북쪽으로 陸路



로 1,010리 떨어진 곳에 한양이 위치한다.<sup>42)</sup>

이러한 청산도는 19세기 말엽에 일명 風高鎮이라 불렸다. 이는 수로로 약 250리 떨어진 곳에 입지한 巨門島鎮(현 여수시)을 소위 風和鎮이라 하여 상호 대비된다. 즉 풍고절은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이고, 풍화절은 3월부터 8월까지 해당되는데, 풍고절에는 청산도



에서 해양을 방비하고, 풍 그림 3 청산도 인근 해역

화절에는 거문도진(현 여수시)에서 방비하였다. 예컨대 청산도의 경우 동쪽 상장구미에 있는 요망돈대와 서쪽 도장구미에 있는 요망돈대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건과 사고를 우수영에 보고하였다.<sup>43)</sup>

반면 거문도는 동남쪽 외양에 있는 조그마한 섬으로, 거주민은 많지 않았으나 지형이 바다를 방어하기에 요해지로 평가되었다. 사망으로 에워싼 산세는 마치 병풍과 같고 10리에 달하는 넓은 灣이 형성되어 있어서 큰 바람이 불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조수가 몰아치지도 않은 곳이었다. 그리하여 1887년 거문도에 수군침절제사 겸 수방장을 파견하여 남해를 관할하도록 하고, 대신 수군침사가 파견되어 있던 청산도진이 혁파되었다. 그런데 당시 전라감사가 장계를 올려 청산도에 침사진을 설치한 것은 선현들이 지혜를 모아 운영한 것이니, 남해를 방비하는 데 있어서 풍화절과 풍고절로 나뉘어서 거문도와 청산도로 하여금 방어망을 강화하도록 상소한 것이다.<sup>44)</sup> 그 결과 청산도는 ‘풍고진 청산도진’이라 하고, 거문도는 ‘풍화 거문도진’이라 하였다. 청산도와 거문도 모두 남쪽 외양에 입지한 요해처로써 19세기말 이양선이 출몰하는 경계지였다.

## 5. 맺음말

42) 『輿地圖書』 전라도 강진현; 김정호·이명현 역, 『全南의 옛 鎭營』, (재)향토문화진흥원, 1995, 3쪽.

43) 『湖南鎭誌』 「風高鎭 靑山島鎭誌」, 軍摠秩.

44) 김정호·이명현 역, 같은 책, 30~40쪽.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輿地圖書』
- 『金海金氏三賢派家乘譜』(戊辰譜), 『慶州鄭氏文獻公派世譜』, 『慶州李氏世譜』(3권)
- 『密陽朴氏糾正公派譜』, 『彥陽金氏秋齋公派譜』
- 『康津縣所在延齡宮屬靑山島民役仍存革祛條件節目』, 1797, 필사본.
- 『全羅道古今島薪智島荏子島智島四鎮釐弊節目』, 1817, 서울대奎17214.
- 『靑山島鎮地圖』, 1872.
- 『靑山鎮丙子戶籍大帳』, 1876, 필사본.
- 『湖南鎮誌』, 1896, 서울대奎12188.
- 『堂里沿革誌』, 1958.
- 장한철 저·정병욱 역, 『표해록』, 범우에세이 86, 범우사, 1979.
- 곽영보, 『거문도풍운사』, 전라남도, 1986.
- 완도향교지편찬위원회, 『완도향교지』, 1980.
- 완도군마을유래지편찬위원회, 『마을유래지』, 완도군, 1987.
- 완도군지편찬위원회, 『완도군지』, 1992.
- 김정호·이명현 역, 『全南의 옛 鎭營』, (재)향토문화진흥원, 1995.
- 김경옥, 『조선후기 도서연구』, 해안, 2004.
- 한국고문서학회 편,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역사비평사, 2013.
- 이해준·김경옥, 「청산도의 역사문화적 배경」, 『도서문화』9,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1.
- 조경만, 「청산도 농업환경과 문화적 적응에 관한 일고찰-부흥리 일대 수도작의 전통적 방식을 대상으로」, 『도서문화』9,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1.
- 이명현, 「조선후기 완도 청산진의 치폐와 그 배경」, 목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경옥, 「조선후기 청산도진의 설치와 재정구조」, 『전남사학』22, 전남사학회, 2004.
- \_\_\_\_\_, 「17-18세기 荏子島鎭의 설치와 목장의 개간」, 『도서문화』2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4.
- \_\_\_\_\_, 「조선후기 古群山鎭의 설치와 운영」, 『지방사와 지방문화』10-1, 역사문화연구회, 2007.
- \_\_\_\_\_, 「조선후기 靑山島 주민들의 입도와 수군진의 설치」, 『한국도서연구』19-2, 한국도서연구회, 2007.
- \_\_\_\_\_, 「16-17세기 古今島 인근 해로와 수군진의 설치」, 『도서문화』33,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9.
- \_\_\_\_\_, 「섬사람들이 만든 구들장논」, 도서문화연구원과 함께 하는 남도 섬 이야기, 아트 플러스, 무등일보 기고, 2014. 4. 30.
- 조진상,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섬관광 발전전략의 모색: 완도군 청산도 방문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21-4, 한국지역개발학회, 2009.
- 한지숙 외, 「슬로시티 매력 분석 : 청산도를 중심으로」, 『관광연구』25-2, 대한관광경영학회, 2010.
- 조영재 외, 「청산도 구들장논의 분포와 물리적 구조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8, 한국농촌계획학회, 2012.
- 허원영, 「19세기 제주도의 호적제 운영과 가족제도의 변화」, 『장서각』 3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 권내현, 「조선후기 호적에 대한 이해 : 논쟁과 과제」, 『한국사연구』 165, 한국사연구회, 2014.

3 주 제

## 19세기 후반 永宗鎭戶籍과 仁川 島嶼住民들의 생활양상

임 학 성(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교수)



## 19세기 후반 永宗鎮戶籍과 仁川 島嶼住民들의 생활양상\*

임 학 성(인하대 한국학연구소 교수)

### 목 차

1. 紫燕島에서 永宗島로: 永宗鎮 移設과 住民·農地의 증가
2. ‘永宗’의 戶籍 자료
3. ‘永宗’ 주민들의 생활양상
4. 발표를 마치며

### 1. 紫燕島에서 永宗島로: 永宗鎮 移設과 住民·農地의 증가

제비가 많다하여 ‘紫燕’이라 불렀던<sup>1)</sup> 仁川의 한 섬이 ‘永宗’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는 계기는 조선 孝宗 4년(1653) 南陽(현재 화성시 남양동 일대)의 永宗浦에 있던 水軍萬戶鎭을 이곳으로 移設함과 아울러 이전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면서였다. 영종진을 옮긴 까닭은 영종진이 남양의 작은 포구 옆(小浦之邊)에 자리잡아 水軍鎭으로서 적합하지 않았던 때문이었다.

永宗萬戶는 南陽의 작은 浦口 옆에 치우쳐 있어 바다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긴요하지 않은 곳의 첫 번째입니다. 이에 이곳(자연도-인용자 주)으로 옮겨 설치하되 이전의 이름을 고치지 말고 監牧官을 겸하도록 하소서.<sup>2)</sup>

\* 이 글은 필자가 기존에 발표한 두 편의 논문(① 「19세기 후반 仁川 島嶼住民의 생활 모습~1867년도 ‘永宗戶籍’의 사례 분석~」, 『한국학연구』 19,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08 / ② 「조선시기 京畿 島嶼지역의 空間認識 변화~國營牧場 설치(조선 전기)에서 水軍鎭 설치(조선 후기)로~」, 『島嶼文化』 43,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2014)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1) 徐兢(1091~1153), 『宣和奉使高麗圖經』 권39 海島 6, 紫燕島. “是日申正 舟次紫燕島 卽廣州也. 倚山爲館 榜曰慶源亭. 亭之側 爲幕屋數十間 居民草舍亦衆. 其山之東一嶼 多飛燕 故以名之”.

2) 『備邊司謄錄』 16책, 孝宗 4년 3월 3일조. “啓曰, … 永宗萬戶 僻在於南陽小浦之邊 距海頗遠 最爲不緊. 以此移設 勿改前號 仍兼監牧 更爲觀勢 陞其職品”.

영종진을 이설할 적합지로 자연도가 선택된 데에는 孝宗대에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江華島의 방비책과 관련이 있었다. 병자호란 이후 淸의 침략에 대비하여 강화도를 保障重地로 삼으면서 해안에 鎭·堡 등의 방어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이와 함께 강화도 남쪽 근방에 위치한 자연도에 水軍鎭을 설치함으로써 喬桐島(水營 설치)와 함께 강화도의 좌우 날개로 삼으려 하였던 것이다.<sup>3)</sup>

그런데, 원래 조선 정부는 島嶼지역에 주민의 거주 및 入島를 제한하는 한편, 말을 키우기 위해 國營牧馬場을 설치하는 이른바 ‘空島’정책을 추진하였다.<sup>4)</sup> 이러한 정책의 기저에는 섬을 王化(즉, 敎化)의 손길이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소외된 지역’으로 간주하는 성리학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sup>5)</sup>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荒唐船(즉, 海賊船)의 출몰을 막기 위한 海防體制의 문제와, 漕運에 의한 物貨 증가에 따른 航路 보호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島嶼지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게 된다. 즉, 군사적인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해결책으로 도서지역에 水軍鎭을 設鎭·增設하였던 것이다.<sup>6)</sup> 특히 都城의 길목에 위치한 경기도 지역의 섬들이 그 어느 곳보다 중시되었다. 紫燕島(永宗島)를 비롯하여 德積島·大阜島·靈興島 등의 섬에 수군진을 설치하게 된 것은 조선 후기 도서지역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의 변화 과정, 결과였던 것이다.

경기 도서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조선 정부는 자연도(영종진)를 海防의 긴요지로 구축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처음 이설 시에 ‘水軍萬戶(종4품)鎭’에 불과하였던 자연도(영종도)는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1681년(숙종 7)에 ‘水軍僉節制使(종3품)鎭’으로, 1690년(숙종 16)에 ‘水軍防禦使(종2품)鎭’으로 점차 그 위상이 높아졌던 것이다.<sup>7)</sup> 또한 1758년(영조 34)에는 喬桐島의 京畿水營 소속으로부터 독립하여 御營廳 관할의 獨鎭이 되어<sup>8)</sup> 해방정책의 중심지로 변모하였다.

3) 朴廣成, 「紫燕島攷」(『畿甸文化研究』 6, 인천교대 기전문화연구소, 1975; 朴廣成, 『韓國中世社會와 文化』, 민족문화사, 1991에 재수록); 배성수, 「해양과 방어체제-조선후기 관방을 중심으로-」(주강현 외, 『바다와 섬, 인천에서의 삶』,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8).

4) 김경옥, 「空島政策의 단행과 牧場의 설치」(김경옥, 『朝鮮後期 島嶼研究』, 혜안, 2004, 47~84쪽에 수록).

5) 배우성, 「조선후기 沿海·島嶼지역에 대한 국가의 인식 변화」(『島嶼文化』 15, 목포대학교 도서관 화연구소, 1997), 311~313쪽.

6) 배우성, 위의 논문, 314~318쪽; 고석규, 「設郡 논의를 통해 본 조선후기 섬의 변화」(『島嶼文化』 15); 강석화, 「조선후기의 경기남부 해로와 大阜·靈興島」(『畿甸文化研究』 28,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2000); 김경옥, 「設鎭論議와 水軍鎭의 증설」(김경옥, 앞의 책, 179~206쪽).

7) 『輿地圖書』 江都府 永宗防營圖誌, 建置沿革條. “... 康熙辛酉(1681년-인용자 주) 陞僉使屬御營廳 海防緊重位號卑微則有違 朝家設施之意 庚午(1690년-인용자 주) 陞防禦使 ...”.

8) 『輿地圖書』 江都府 永宗防營圖誌, 建置沿革條. “... 乙酉(1705년-인용자 註) 屬之喬桐水營 戊寅(1758년-인용자 주) 復屬御營廳設獨鎭”.

자연도(영종도)에의 수군진 설치는 도서 주민의 증가 현상을 수반하였다. 도서 주민의 증가는 해당 도서를 해방의 긴요지로 완성시키기 위한 주요 방책 가운데 하나였다. 자연도의 주민 증가 사례를 보면, 移設 직후인 1656년(효종 7)에 백성들을 모집하여 들어와서 살게 했으며,<sup>9)</sup> 1678년(숙종 4)에는 국영목장을 혁파하면서 사람을 불러 모아 그 땅을 경작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sup>10)</sup> 그 결과, 예전에는 進上할 만큼 많던 사슴이 지금은 늘어난 주민 때문에 거의 멸종되었다고 보고될 정도였다.<sup>11)</sup>

그러면 설진 이후 주민의 증가 양상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에 앞서 설진 이전의 주민 양상을 보면, 12세기 전반기의 기록인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에 막집[幕屋] 수십 칸과 주민들의 초가집이 많다고 하였다.<sup>12)</sup> 즉, 당시 자연도에 宋의 使臣과 商人들을 접대하던 客館(‘慶源亭’을 말함)이 있었기에<sup>13)</sup> 거주하는 주민 또한 적지 않았음을 엿보게 해준다. 그런데 15세기 전반기의 『世宗實錄地理志』에 따르면, 자연도에 水軍·牧子·鹽夫 등의 家戶가 30여 집에 불과하였다고 한다.<sup>14)</sup> 공도정책에 따라 국영목마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거주 및 입도를 禁制한 결과였다.<sup>15)</sup>

그러나 조선 후기 永宗鎭 지역의 戶口 규모를 정리한 아래 <표 1>을 보게 되면,<sup>16)</sup> 설진 이후 약 100년이 지난 1759년에는 주민수가 850戶·3,038명에 이르렀다. 더군다나, 이로부터 30년 후인 1789년에는 주민수가 1,028戶·3,155명으로 급증하였다. 같은 시기 인천도호부의 전체 주민수가 4,096戶·14,566명이었으므로, 당시 영종진의 주민수는 인천 전체 주민수의 25%(戶의 경우)·22%(口의 경우)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 『備邊司謄錄』 18책, 孝宗 7년 6월 28일조. “啓曰 永宗鎭新設之後 別立事目 使之募民入居矣”.

10) 『肅宗實錄』 권7, 4년 9월 을축(27일)조. “移紫燕牧場牛馬 于龍流無衣兩島 以紫燕設屯故也”.

11) 『肅宗實錄』 권7, 4년 10월 경오(3일)조. “仁川紫燕島 舊有臘鹿進上之規 而即今人居漸盛 鹿幾絕種”.

12) 註 1번 참조.

13) 朴廣成, 앞의 논문; 앞의 책, 403~404쪽.

14) 『世宗實錄地理志』 京畿 富平都護府 仁川郡. “紫燕島 … 放國馬三百五十八匹. 有水軍牧子鹽夫 共三十餘戶”.

15) 한편 『世宗實錄地理志』에 따르면, 역시 국영목장이 설치된 자연도 인근의 三木島와 龍流島에도 수군·목자·염부 등이 30여 戶와 20여 戶 정도 거주하였다고 한다.

16) 조선 후기 永宗鎭의 호구수를 기재하고 있는 地誌類 자료는 鎭의 관할 하에 있던 삼목도와 용유도는 물론 경우에 따라 舞衣島의 호구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주민수의 추이 또한 이들 섬을 총괄하여 살필 수밖에 없다.

<표 1> 조선 후기 永宗鎭 지역의 戶口數 추세

지역 시기 호구			永宗島				三木島 (三木面)	龍流島 (龍流面)	계
			營下面	前所面	後所面	소계			
1759년 자료(1)	戶數		면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음						850
	口數	계							3,038
		男							1,591
		女							1,447
1789년 자료(2)	戶數		178	227	350	755	72	201	1,028
	口數	계	562	679	1,051	2,292	228	635	3,155
		男	308	348	591	1,247	116	350	1,713
		女	254	331	460	1,045	112	285	1,442
1840년 자료(3)	戶數		면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음						869
	口數								2,769
1864년 자료(4)	戶數		면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음						882
	口數	계							2,723
		男							1,530
		女							1,193
1867년 자료(4)	戶數		162	204	283	649	53	206	908
	口數	계	541	616	814	1,971	170	606	2,747
		男	297	338	451	1,086	89	339	1,514
		女	244	278	363	885	81	267	1,233
1870년 자료(5)	戶數		면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음						878
1894년 자료(6)	戶數		면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음						918
	口數								2,438
1907년 자료(7)	戶數		永宗面으로 통합하여 기재						1,102
	口數	계							3,731
		男							2,011
		女							1,720
1909년 자료(8)	戶數		永宗面으로 통합하여 기재						1,343
	口數	계							6,483
		男							3,419
		女							3,064

비고) 각 시기별 자료의 典據는 다음과 같음.

자료(1): 『輿地圖書』(1760년 경 편찬), 江都府 永宗防營圖誌.

자료(2): 『戶口總數』(1789년 경 편찬) 2책, 京畿道, 仁川.

자료(3): 『京畿誌』(1842~43년 편찬) 3책, 「永宗鎭圖誌」.

자료(4): 『同治六年正月 日永宗防營今丁卯式帳籍冊』(1867년 편찬), ‘都已上’條.

자료(5): 『京畿邑誌』(1871년 편찬) 1책, 「同治十年十月 日京畿永宗防營邑誌及事例」.

자료(6): 『畿甸邑誌』(1894~95년 편찬) 1책, 「開國五百四年正月 日永宗鎭事例」.

자료(7): 『韓國戶口表』(1907년 편찬), 京畿道 仁川郡.

자료(8): 『民籍統計表』(1910년 편찬), 京畿道 仁川郡.



이처럼 18세기 말엽까지 급증 추세를 보이던 영종진의 주민수는 19세기에 이르러 그 증가 추세가 다소 주춤하다가(1840년 869호·2,769명 → 1867년 908호·2,747명 → 1870년 878호 → 1894년 918호·2,438명), 20세기 초에 들어서면 다시 증가한 것(1907년 1,102호·3,731명 → 1909년 1,343호·6,483명)으로 나타난다.<sup>17)</sup> 특히, 1909년도의 영종진 인구는 급증하였음을 본다.

한편, 영종진 지역은 주민의 증가와 함께 農耕地도 적지 많이 증가하였다. 조선 후기 영종진 지역의 田畓 규모의 추세를 보면(<표 2> 참조), 1760년경에 총 169結 85負이었던 농경지가 1841년에는 179結 95부, 1871년에는 190結 74부, 1894년에는 200結 19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즉, 1894년의 농경지 총 규모는 1760년경과 비교하여 약 18%가 증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밭[田]의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1760년경 100% → 1841년 92% → 1871년 65% → 1894년 64%)한 반면, 논[畓]의 규모는 이와 반대의 양상(1760년경 100% → 1841년 133% → 1871년 202% → 1894년 220%)을 보였다. 특히 1894년의 밭 규모는 1760년경과 비교하여 무려 36%나 격감하였고, 논은 120%나 급증하고 있었다. 이 결과 1760년경에 ‘밭6 對 논4’ 정도의 비율을 보인 농경지의 규모가 1894년에 들어와 그 반대인 ‘밭4 對 논6’의 비율로 급변하기도 하였다.

<표 2> 조선 후기 永宗鎭 지역의 田·畓 규모 추세

전답 시기	계	田	畓	전거
1760년경	169結 85負 <100>	111結 25負 <100>/(65.5)	58結 60負 <100>/(34.5)	자료(1)
1841년	179結 95負 <105.9>	102結 13負 <91.8>/(56.8)	77結 82負 <132.8>/(43.2)	자료(3)
1871년	190結 74負 <112.3>	72結 24負 <64.9>/(37.9)	118結 50負 <202.2>/(62.1)	자료(5)
1894년	200結 19負 <117.9>	71結 69負 <64.4>/(35.8)	128結 50負 <219.3>/(64.2)	자료(6)

비고) ① 각 시기별 전거는 앞의 <표 1>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함.

② < > 안의 수치는 1760년경 규모 대비 각 시기별 증감 비율을, 그리고

( ) 안의 수치는 각 시기별 田·畓의 비율을 말함.

③ 면적 단위 중 負 아래의 束 수치는 四捨五入함.

17) 각 시기마다 어떤 자료에는 무의도(무의면)의 호구수가 집계되었고, 어떤 자료에는 집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사정이 그렇더라도 무의도의 주민수가 多大하지 않기에 그 경향을 살피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이상, 조선 후기 이후 영종진 지역에 농경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그 주된 이유가 밭 면적의 감소율을 훨씬 상회하는 논 면적의 증가율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종진 지역에서 논 면적이 급증한 원인을 究明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아마도 海岸 低濕地의 간척이 주된 원인이었을 것이다. 영종진 관할 하에 있던 자연도(영종도)와 삼목도는 干潮 때에 말이 두 섬을 왕래할 정도였는데,<sup>18)</sup> 이는 潮水가 물러가면 거의 육지처럼 변하였기 때문이다. 18세기 중엽에 작성된 『海東地圖』에 수록된 「永宗鎭地圖」에서도 자연도의 상하에 각기 ‘潮退成陸’(조수가 물러나면 육지를 이룬다)고 표기하고 있었다(<지도 1> 참조).<sup>19)</sup> 이러한 자연환경이라면 해안 저습지를 개간하여 논으로 만드는 일이 그리 불가능하지만은 않았다고 본다.



한편 해안 저습지의 干拓作畓과 함께, 밭을 논으로 바꾸는 ‘反畓’도 영종진 지역의 논 면적 급증에 적지 많이 작용하였다고 본다.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이후에 들어서면 인구증가

18) 『世宗實錄地理志』 京畿 富平都護府 仁川郡. “三木島 在紫燕島之傍 … 每潮退 紫燕島馬自相往來”.

19) 『海東地圖』 上(서울대학교 奎章閣, 1995).

와 식량부족, 米穀의 상품성 증대, 水利시설의 확대 등의 여러 요인이 배경이 되어 ‘번답’이 성행하고 있었던 것이다.<sup>20)</sup>

영종진 지역에서의 ‘번답’이 진행되었다고 추정해보는 이유는 앞의 <표 2>를 통해 살펴본 것같이, 무엇보다도 밭의 면적이 현저하게 감소한 때문이다. 논 면적의 급증이 단지 간척에만 기인했다면 이처럼 밭 면적의 격감 현상은 나타날 수 없었다. 아마도 줄어든 밭 면적의 상당수는 논으로 전환되었다고 본다.

## 2. ‘永宗’의 戶籍 자료

19세기 후반 영종진 지역(이하, ‘永宗’<sup>21)</sup>)에서 거주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살피기에 앞서, 영종호적 자료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겠다. 이 자료는 일본 東京國立博物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간략 서지 사항을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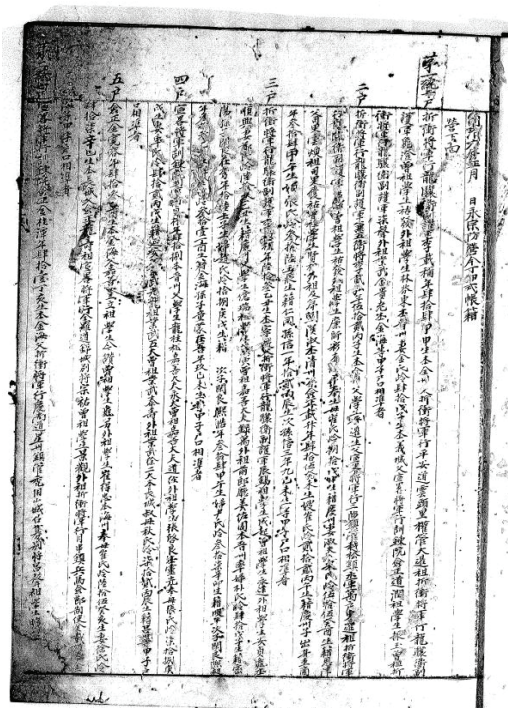
- ① 제명: ‘同治六年正月 日永宗防禦營今丁卯式帳籍冊’
- ② 크기: 세로 57.0cm × 가로 40.1cm
- ③ 분량: 1책 93면
- ④ 소장번호: TB-1116
- ⑤ MF번호: M3340

題名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자료는 ‘同治六年’ 즉 1867년(고종 4丁卯) 永宗防禦營에서 호구조사를 시행한 후 成冊한 戶口帳籍(戶籍大帳)이다. 자료에는 당시 永宗防禦營의 관할인 營下面·前所面·後所面(이상, 영종도)과 三木面(삼목도), 龍流面(용유도) 등 5개 지역의 거주민의 人的 사항이 등재되어 있으며, 주민수는 총 908戶에 2,747명(남자 1,514명·여자 1,233명)이다.

앞뒤 표지를 제외한 본문은 총 91면으로 되어 있는데, 각 면마다 세로로 20行의 線이 그어져 있어 여기에다가 각 호별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사진 1> 참조).

20) 林學成, 「조선 후기 ‘反畓’의 성행과 그 배경」(『仁荷史學』 2, 인하역사학회, 1994).

21) 본 글에서 ‘永宗’으로 표기할 때는 조선 후기 永宗鎭 관할 하에 있던 삼목도와 용유도 등이 포함된 범주임을 밝혀 둔다.



<사진 1> '1867년 영종진호적대장' 본문 1면

본문의 주민 구성은 營下面이 제1통 1호~제32통 2호, 前所面이 제1통 1호~제41통 4호, 後所面이 제1통 1호~제57통 2호, 三木面이 제1통 1호~제11통 3호, 그리고 龍流面이 제1통 1호~제42통 2호 등으로 編制되어 있다. 따라서 洞里의 구분 없이 面別로만 일관되게 五家作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호적자료에 기재된 내용 일부를 소개해 보겠다.

#### <사례-1>

(營下面 第三統) 五戶 鄉吏金昌鍵年貳拾肆甲辰生本慶州 父學生錫基 生父兪正錫峻 祖學生魯垌曾祖嘉善大夫尙蕃 外祖折衝將軍潼關鎮兵馬僉節制使崔象崙本慶州 奉母崔氏齡伍拾柒辛未生 妻張姓年貳拾參己巳生本仁同 父閑良有錫 祖學生得實 曾祖學生福金 外祖學生金連順本金海等 甲子戶口相準者

<해석> 영하면 제3통 5호에 거주하는 호수(戶首) 향리 김창건(金昌鍵)으로 나이는 24세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호수의 부는 학생 석기(錫基), 생부는 첨정 석원(錫峻), 조부는 학생 노동(魯垌), 증조부는 가선대부 상변(尙蕃), 외조부는 절충장군 행 동관진병마첨절제사 최상륜(崔象崙)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호수의 모는 최씨로 나이는 57세이다. 호수의 처는 장씨로 나이는 23세. 본관은

인동이다. 처의 부는 한량 유석(有錫), 조부는 학생 득실(得實), 증조부는 학생 복금(福金), 외조부는 학생 김연순(金連順)으로 본관은 김해이다. 이 기재 내용은 갑자년(1864년)에 작성된 호적과 서로 대조한 것이다.

## <사례-2>

(營下面 第十統) 二戶 官奴蔡京烈年伍拾柒辛未生本邵城 父僉正希大 祖業武二光 曾祖業武殷九 外祖金萬雄本慶州 妻李召史年肆拾玖己卯生本全州 父學生學秀 祖良明圭 曾祖良世喆 外祖良金光秀本安東 等甲子戶口相準者

<해석> 영하면 제10통 2호에 거주하는 호수는 관노 채경렬(蔡京烈)으로 나이는 57세이며, 본관은 소성(邵城: 인천의 옛지명)이다. 호수의 부는 첨정 희대(希大), 조부는 업무 이광(二光), 증조부는 업무 은구(殷九), 외조부는 김만웅(金萬雄)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처는 이조이(召史)로 나이는 49세, 본관은 전주이다. 처의 부는 학생 학수(學秀), 조부는 양인 명규(明圭), 증조부는 양인 세철(世喆), 외조부는 양인 김광수(金光秀)로 본관은 안동이다. 이 기재 내용은 갑자년에 작성된 호적과 서로 대조한 것이다.

## <사례-3>

(三木面 第四統) 四戶 閑良朴命仁故代子僉正歧煥年參拾玖己丑生本密陽 父學生命仁 祖學生龍大 曾祖學生孝在 外祖學鄭定雲本慶州 奉母鄭氏嶺陸拾陸壬戌生 妻金氏嶺參拾壹丁酉生籍金海 父業武春碧 祖嘉善明哲 曾祖學生丕善 外祖學生金龍雲本豐山 率子童蒙教訥年拾肆甲寅生 次子童蒙教宗年拾貳丙辰生 等甲子戶口相準者

삼목면 제4통 4호에 거주하는 호수는 한량 박명인(朴命仁)을 대신한 아들 첨정 기환(歧煥)으로 나이는 39세이며, 본관은 밀양이다. 호수의 부는 학생 명인(命仁), 조부는 학생 용대(龍大), 증조부는 학생 효재(孝在), 외조부는 학생 정정운(鄭定雲)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호수의 모는 정씨로 나이는 66세이다. 호수의 처는 김씨로 나이는 31세, 본관은 김해이다. 처의 부는 업무 춘벽(春碧), 조부는 가선대부 명철(明哲), 증조부는 학생 돌선(丕善), 외조부는 학생 김용운(金龍雲)으로 본관은 풍산이다. 동거하는 아들은 동몽 교눌(敎訥)로 나이는 14세이며, 둘째 아들은 동몽 교종(敎宗)으로 나이는 12세이다. 이 기재 내용은 갑자년에 작성된 호적과 서로 대조한 것이다.

## <사례-4>

(龍流面 第九統) 三戶 獨金氏嶺肆拾柒辛巳生本光山 父學生義聖 祖學生德希 曾祖學生斥敏 外祖學生鄭重鉉本慶州 率子軍官張學誦年拾柒辛亥生 等甲子戶口相準者

<해석> 용유면 제9통 3호에 거주하는 호수는 김씨로 나이는 47세이며, 본관은 광산이다. 호수의

부는 학생 의성(義聖), 조부는 학생 덕희(德希), 증조부는 학생 척민(斥敏), 외조부는 학생 정중현(鄭重鉉)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동거하는 아들은 군관 장학송(張學誦)으로 나이는 17세이다. 이 기재 내용은 갑자년에 작성된 호적과 서로 대조한 것이다.

본문의 끝 면인 91면에는 永宗鎭防禦使의 手決과, 그 아래에 호적 작성 및 成冊을 관장한 監官과 厘(釐)正, 色吏 등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사진 2> 참조). 이 호적대장이 1867년 정월에 성책된 것이기에 당시 防禦使가 申孝哲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22)</sup> 그리고 監官은 張昊淵으로 본 ‘永宗’호적의 前所面 36통 3호의 戶首로 확인되며, 두 명의 色吏 金昌鍵과 金元植 또한 營下面의 3통 5호(앞의 <사례-1>)와 4통 1호의 호수였다. 다만, 3명의 厘正 金道尙과 崔弘植, 金今先은 본 호적에서 찾을 수 없었다.



<사진 2> ‘1867년 영종진호적대장’ 91면

22) 『外案』 4, 永宗畿仁川(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이 자료에 따르면 신호철은 1866년 11월에 부임하였고, 1868년 9월에는 尹滄가 후임으로 부임하고 있다.

여하튼 이 자료가 인천지역 사회, 그리고 지역사 연구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매우 크다 하겠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까닭은 첫째, 조선시대에 작성된 인천지역의 호적대장으로는唯一 자료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인천지역의 호적 자료는 서울대학교의 규장각 도서관에 소장된 光武 년간의 ‘新式戶籍’ 2책(1898년에 작성된 답동과 축현외동의 戶籍表冊)과,<sup>23)</sup> 여러 기관 및 개별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古文書類(戶口單子, 準戶口 등)<sup>24)</sup>만이 알려졌을 뿐이다.

둘째, 島嶼지역 특히 設鎭 도서지역의 호적대장으로는 매우 희귀한 자료라는 점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水軍鎭이 설치된 도서지역의 호적대장은 본 자료와, 전라도 靑山島의 1876년도 『靑山鎭丙子戶籍大帳』<sup>25)</sup> 두 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에 소개·분석하는 ‘1867년 永宗鎭戶籍大帳’은 조선시대의 인천지역, 특히 인천 앞 도서지역에서 거주하였던 주민들의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 3. ‘永宗’ 주민들의 생활양상

#### 1) 戶口와 性比

1867년 永宗防禦營이 관할하고 있었던 5개面에서 거주하고 있던 주민은 908戶에 2,781명이다. 남녀별로는 1,552명(남)과 1,229명(녀)으로 남자가 323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3> 참조). 面別로는 영종도의 후소면이 282호·8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용유면(용유도)이 207호·637명, 영종도 전소면이 204호·630명, 영종도 영하면이 162호·546명, 그리고 삼목면(삼목도)이 가장 적은 53호·168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23)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임학성, 「인천지역의 조선시대 戶籍資料에 관한 기초적 연구(I)~甕津郡 島嶼지역의 準戶口와 仁川港지역의 ‘新式戶籍’ 소개~」(『인천학연구』 2-1,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3) 참조.

24) 인천지역의 호구단자와 준호구 자료에 대한 소개는 임학성, 「朝鮮後期 牧馬軍 一家의 身分變化~靈興島 平澤林氏家所傳 準戶口の 分析~」(『한국학연구』 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8); 임학성, 「19세기 西海 設鎭島嶼지역의 戶籍자료를 통해서 본 戶政 및 住民의 特性~國史編纂委員會 소장 德積島 安東金氏家의 準戶口를 중심으로~」(『仁荷史學』 10, 仁荷歷史學會, 2003); 임학성, 위의 논문 등 참조.

25) 이 호적 자료는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의 조사단에 의해 발굴되었다(김경옥, 앞의 책, 195쪽).



&lt;표 3&gt; 1867년 永宗 주민의 戶와 口

지역 호구		영종도				삼목도 (삼목면)	용유도 (용유면)	계
		영하면	전소면	후소면	소계			
戶數		162	204	282	648	53	207	908
口數	계	546	630	800	1,976	168	637	2,781
	男	296	353	444	1,093	93	366	1,552
	女	250	277	356	883	75	271	1,229
戶當 口數	계	3.37	3.09	2.84	3.05	3.17	3.08	3.06
	男	1.83	1.73	1.57	1.69	1.75	1.77	1.71
	女	1.54	1.36	1.26	1.36	1.42	1.31	1.35

5개면 전체의 1호당 평균인구수는 3.06명(남자 1.71명, 여자 1.35명)으로 나타났으며, 면별로는 영하면이 가장 많은 3.37명(남자 1.83명, 여자 1.54명)을 보였고, 후소면이 2.84명(남자 1.57명, 여자 1.26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종방어영이 있는 ‘治所’ 지역의 주민들이 家戶 당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1867년 당시 永宗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323명이나 더 많았음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에, 性比가 126.3%로 나타났다(<표 4> 참조).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남자가 여자보다 26명 정도 더 많았던 셈이다. 면별로는 용유면이 135.1%로 가장 높았고, 영하면이 118.4%로 가장 낮았다.

&lt;표 4&gt; 1867년 永宗 주민의 性比

지역 성비	영종도				삼목도 (삼목면)	용유도 (용유면)	계
	영하면	전소면	후소면	소계			
男	296	353	444	1,093	93	366	1,552
女	250	277	356	883	75	271	1,229
性比	118.4	127.4	124.7	123.8	124.0	135.1	126.3

비고) 性比는 女를 100%로 했을 때의 男比를 말함.

일반적으로 전통시대의 실재 성비는 100% 이하로 보는 게 통설이다. 永宗 호적에서 보인 126%라는 성비는 마치 요즘의 세대를 보는 듯하다. 이러한 양상을 보인 원인이 軍鎭이 설치된 특수지역이었던 때문이었을까? 이 보다는 女息을 호적에 올리지 않는 전통시대의 호



적작성 관습에 기인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실제 본 호적자료에서 戶首와 동거하는 것으로 등재된 여식은 15명(女 14명, 曾孫女 1명)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하여 아들은 542명, 손자는 57명이나 등재되고 있었다(아래 <표 5> 참조). 물론 아들이나 손자 역시 나이가 어리면 호적에 등재하지 않는 것이 전통시대 관습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식의 경우와 비교하면 호적등재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은 게 사실이다.

한편, 最年少者는 남자가 5세였으며,<sup>26)</sup> 여자는 8세였다.<sup>27)</sup> 결국 아들 딸 모두 5세 미만의 영유아가 호적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같았으나, 딸의 경우에는 8세 이상이라도 호적에 거의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다.

## 2) 家戶내 同居人

그러면 1767년도의 ‘永宗’호적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戶首와 동거하고 있었을까? 먼저 호수와 의 관계로 구분해보면(<표 5> 참조), 전체 23種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子가 542명으로 전체 동거인의 절반가량(48.5%)이나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子婦가 263명(23.5%), 母가 131명(11.7%), 孫子가 57명(5.1%), 弟가 42명(3.8%), … 등을 나타내고 있었다. 女는 14명으로 전체 동거인의 1.3%에 불과하였다.

<표 5> 1867년 永宗호적에 등재된 同居人 분포

지역 관계		영종도				삼목면	용유면	계
		영하면	전소면	후소면	소계			
직계 존속	祖母	4	-	-	4	1	-	5
	母	37 (15.0)	23 (8.7)	42 (14.8)	102 (12.8)	8 (11.6)	21 (8.3)	131 (11.7)
직계 비속	子	104 (42.1)	132 (49.8)	135 (47.5)	371 (46.6)	35 (50.7)	136 (54.0)	542 (48.5)
	子婦	52 (21.1)	78 (29.4)	64 (22.5)	194 (24.4)	17 (24.6)	52 (20.6)	263 (23.5)
	孫子	16 (6.5)	13 (4.9)	14 (4.9)	43 (5.4)	3 (4.3)	11 (4.4)	57 (5.1)
	孫婦	1	4	5	10	1	2	13
	女	3 (1.2)	-	2 (0.7)	5 (0.6)	-	9 (3.6)	14 (1.3)

26) 前所面 5통 1호의 戶首 金○吉(40세, 出身)의 아들 ○俊이 그러하다.

27) 龍流面 28통 4호의 戶首 金○連(71세, 閑良)의 차녀가 그러하다.

	壻	2	-	2	4	-	3	7
	曾孫女	-	-	-	0	-	1	1
	收養子	-	-	-	0	-	1	1
	外孫子	1	-	-	1	-	-	1
형제 자매	兄	1	1	-	2	-	-	2
	兄嫂	-	-	1	1	-	-	1
	弟	11 (4.5)	7 (2.6)	15 (5.3)	33 (4.1)	3 (4.3)	6 (2.4)	42 (3.8)
	弟嫂	5	3	1	9	1	3	13
	妹	2	-	-	2	-	-	2
	妹夫	1	-	-	1	-	-	1
	妻娚	1	-	-	1	-	-	1
기타	叔母	1	-	-	1	-	-	1
	姪子	1	1	1	3	-	1	4
	育(妾)	2	2	-	4	-	-	4
노비	奴	-	1	2	3	-	4	7
	婢	2	-	-	2	-	2	4
계		247 (100)	265 (100)	284 (100)	796 (100)	69 (100)	252 (100)	1,117 (100)

비고) ① (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② ‘관계’는 戶首와의 관계를 말함.

이밖에 奴와 婢는 각각 7명과 4명만이 확인되며, 단지 ‘育’으로만 기재된 동거인 4명이 나타난다. 이들 4명이 모두 여자라는 점과, 호수가 모두 홀아비(鰥夫)라는 점이 일치한다.<sup>28)</sup> 따라서 ‘育’은妾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었지 않나 본다.

### 3) 年齡 분포

28) ‘育’이 동거하고 있는 家戶의 인적 구성을 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영하면 6통 5호: 戶首 金○成(43세), 率育 張召史(43세), 子(15세), 子(13세)
- ② 영하면 9통 3호: 戶首 李○慶(55세), 率育 朴召史(49세), 子(20세), 子(12세)
- ③ 전소면 31통 3호: 戶首 金○均(57세), 率育 韓姓(54세)
- ④ 전소면 35통 3호: 戶首 金○學(85세), 率育 愼召史(85세), 子(36세)

1867년 永宗 주민 중 戶首의 연령 분포를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다. 戶首는 8세짜리부터 88세까지 분포하였다. 최연소 호수는 용유면 24통 1호에 거주하고 있던 ‘李○吉’로 42세된 모친과 단 둘이서 거주하고 있었다. 8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호수가 된 데에는 부친 ‘○成’이 사망하여 호수를 승계하였기 때문이다.

&lt;표 6&gt; 1867년 永宗 戶首의 年齡 분포

지역 연령	영종도				삼목도 (삼목면)	용유도 (용유면)	계
	영하면	전소면	후소면	소계			
10代 미만	-	-	-	-	-	1<8> (0.5)	1 (0.1)
10代	1<18> (0.6)	1<19> (0.5)	1<16> (0.4)	3 (0.5)	1<18> (1.9)	4 (1.9)	8 (0.9)
20代	16 (9.9)	22 (10.8)	36 (12.8)	74 (11.4)	4 (7.5)	14 (6.8)	92 (10.1)
30代	41 (25.3)	41 (20.1)	72 (25.4)	154 (23.8)	10 (18.9)	39 (18.8)	203 (22.4)
40代	41 (25.3)	62 (30.4)	76 (27.0)	179 (27.6)	15 (28.3)	69 (33.3)	263 (29.0)
50代	30 (18.5)	26 (12.7)	51 (18.1)	107 (16.5)	6 (11.3)	33 (15.9)	146 (16.1)
60代	21 (13.0)	33 (16.2)	39 (13.8)	93 (14.4)	15 (28.3)	33 (15.9)	141 (15.5)
70代	11 (6.8)	16 (7.8)	7 (2.5)	34 (5.2)	2<74> (3.8)	11 (5.3)	47 (5.2)
80代	1<85> (0.6)	3<85> (1.5)	1<82> (0.4)	5 (0.8)	-	2<88> (1.0)	7 (0.8)
계	162 (100)	204 (100)	282 (100)	648 (100)	53 (100)	207 (100)	908 (100)

비고) ① (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② < > 안의 수치는 각 면별 최연소·최고령 戶首의 연령임.

연령층별로 보면 40대 호수가 2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대(22.4%), 50대(16.1%), 60대(15.5%), 20대(10.1%), 70대(5.2%), 10대(0.9%), 80대(0.8%) 등의 順이었다. 20대 호수가 적었던 데에는 혼인을 하더라도 分家(分戶)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면별로는 5개 면 모두 40대 호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영하면의 경우 30대 호수, 그리고 삼목면의 경우 60대 호수 등이 40대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 4) 姓貫 분포

1867년 ‘永宗’에서 거주한 908명의 戶首 姓貫(<표 7> 참조)은 金海金氏가 134명(전체의 14.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全州李氏가 72명(7.9%), 慶州金氏가 70명(7.7%), 慶州鄭氏가 46명(5.1%), 仁同張氏가 44명(4.8%), 靈光張氏가 40명(4.4%)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밖에 10명 이상의 戶首가 있었던 성관으로는 慶州崔氏(30명)·晉州姜氏(26명)·文化柳氏(20명)·密陽朴氏·坡平尹氏(각 19명)·驪州秋氏(14명)·南平文氏(13명)·慶州李氏(12명)·濟州高氏·海州吳氏(각 11명)·順興安氏(10명) 등이었다.

<표 7> 1867년 永宗 戶首의 姓貫 분포

지역 성관	영종도				삼목도 (삼목면)	용유도 (용유면)	계
	영하면	전소면	후소면	소계			
金海金	43(26.5)	38(18.6)	31(11.0)	112(17.3)	6(11.3)	16( 7.7)	134(14.8)
全州李	16( 9.9)	11	22( 7.8)	49( 7.6)	7(13.2)	16( 7.7)	72( 7.9)
慶州金	21(13.0)	33(16.2)	5	59( 9.1)	5( 9.4)	6	70( 7.7)
慶州鄭	1	5	18( 6.4)	24( 3.7)	-	22(10.6)	46( 5.1)
仁同張	5	14( 6.9)	18( 6.4)	37( 5.7)	-	7	44( 4.8)
靈光張	-	16( 7.8)	13( 4.6)	29( 4.5)	2	9( 4.3)	40( 4.4)
慶州崔	8( 4.9)	5	9	22( 3.4)	2	6	30( 3.3)
晉州姜	6( 3.7)	5	6	17	2	7	26( 2.9)
文化柳	1	14( 6.9)	3	18	1	1	20( 2.2)
坡平尹	3	2	6	11	-	8	19( 2.1)
密陽朴	4	1	9	14	4( 7.5)	1	19( 2.1)
驪州秋	1	-	11( 3.9)	12	1	1	14( 1.5)
南平文	-	-	6	6	-	7	13( 1.4)
慶州李	1	-	5	6	-	6	12( 1.3)
濟州高	2	1	6	9	1	1	11( 1.2)

海州吳	1	1	5	7	2	2	11( 1.2)
順興安	2	2	2	6	3	1	10( 1.1)
기타 面別 多數 姓貫	隋城崔 3 坡州廉 2	安東金 4 陽川金 3 忠州池 3 定山千 3	德水張 7 平壤趙 6 瑞山宋 5 咸陽朴 4 陽川許 4	-	密陽崔 5 江陵劉 4	杞溪俞 9 光山金 6 漢陽趙 6 安東金 4 礪山宋 4 水原車 4	-
전체 戶首	162 (100)	204 (100)	282 (100)	648 (100)	53 (100)	207 (100)	908 (100)

비고) (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면별로는 영종도에 속한 3개面(영하·전소·후소)에서는 김해김씨 호수가 가장 많았던 반면, 삼목면에서는 전주이씨, 용유면에서는 경주정씨가 가장 많았다.

한편, 永宗 전체로는 10호 미만이나 각 면별로는 다수에 속하는 성관이 있었는데, 영하면에서는 隋城崔氏와 坡州廉氏, 전소면에서는 安東金氏와 陽川金氏·忠州池氏·定山千氏, 후소면에서는 德水張氏와 平壤趙氏·瑞山宋氏·咸陽朴氏·陽川許氏, 삼목면에서는 密陽崔氏와 江陵劉氏, 그리고 용유면에서는 杞溪俞氏를 비롯하여 光山金氏·漢陽趙氏·安東金氏·礪山宋氏·水原車氏 등이 그러하다.

이상에서 나타난 永宗호적의 양상을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輿地圖書』 「永宗防營圖誌」의 ‘姓氏’條와 비교해 보면, 호적에서 10호 이상을 보인 다수 姓貫 중 金海金氏·全州李氏·慶州鄭氏·仁同張氏·文化柳氏·坡平尹氏·密陽朴氏·順興安氏 등이 일치하고 있다. 이들 8개 성관은 永宗에서의 거주가 적어도 100여 년 이상은 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다수 성관 중 慶州金氏·靈光張氏·慶州崔氏·晉州姜氏·驪州秋氏·南平文氏·慶州李氏·濟州高氏·海州吳氏 등은 「永宗防營圖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즉, 이들 9개 성관은 18세기 중엽 이후에 永宗으로 入島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5) 職役 분포

끝으로 1867년 永宗에 거주한 戶首들의 職役을 살펴보기로 하겠다(<표 8> 참조). 총 37개의 직역이 보이는데, 이 중 ‘獨’은 직역이 아니라 寡婦에 대한 표기 방식이다. 따라서 남자에 대한 직역으로는 총 36개가 확인된다.

&lt;표 8&gt; 1867년 永宗 戶首의 職役 분포

지역 지역	영종도				삼목면	용유면	계
	영하면	전소면	후소면	소계			
閑良	37(22.8)	109(53.4)	121(42.9)	267(41.2)	13(24.5)	42(20.3)	322(35.5)
軍官	43(26.5)	12( 5.9)	44(15.6)	99(15.3)	24(45.3)	36(17.4)	159(17.5)
良人	8( 4.9)	2	23( 8.2)	33( 5.1)	1	43(20.8)	77( 8.5)
幼學	8( 4.9)	10( 4.9)	12( 4.3)	30( 4.6)	-	21(10.1)	51( 5.6)
別隊軍	15( 9.3)	1	7	23( 3.5)	1	22(10.6)	46( 5.1)
忠義衛	6	24(11.8)	9	39( 6.0)	-	4	43( 4.7)
宣略將軍	9( 5.6)	13( 6.4)	7	29( 4.5)	2	5	36( 4.0)
折衝將軍	5	-	3	8	2	8	18( 2.0)
出身	-	8( 3.9)	2	10	-	3	13( 1.4)
嘉善大夫	2	-	6	8	1	2	11( 1.2)
僉正	4	3	1	8	1	-	9( 1.0)
司果	1	1	4	6	-	2	8( 0.9)
<前職>	-	9( 4.4)	14( 5.0)	23( 3.5)	3	5	31( 3.4)
기타 面別 多數 職役	鄉吏 7 官奴 2	-	水軍 7 細樂手5	-	別破陣2	巡將 2 童蒙 2	-
전체 戶首	162 (100)	204 (100)	282 (100)	648 (100)	53 (100)	207 (100)	908 (100)

비고) ① (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② 각 면별 &lt;前職&gt;者は 아래와 같음.

- 전소면: 前把摠·前風憲(각 4명), 前僉正(1명)
- 후소면: 前把摠(6명), 前哨官(5명), 前校生·前司果·前風憲(각 1명)
- 삼목면: 前把摠(3명)
- 용유면: 前哨官(2명), 前郎廳·前史閣參奉·前尊位(각 1명)

가장 많은 직역자는 閑良으로 무려 35.6%나 되었다. 일반적으로 한량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武科에 급제하지 못한 무인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한량을 직역으로 기재한 자가 이렇게 많았던 까닭은 設鎭島嶼 지역이라는 永宗의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겠다. 역시 한량 외에 軍官 직역자도 17.5%로 많았고, 이밖에도 別隊軍(5.1%)·宣略將軍(4.0%)·折衝將軍(2.0%) 등, 武班帶品者 및 軍役者의 점유율이 적지 않았다.

면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소면과 후소면에서는 한량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며(53.4%, 42.8%), 삼목면과 영하면에서는 군관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45.3%, 26.5%). 한편 용유

면에서는 良人 직역자의 점유율이 가장 높게(20.9%) 나타났을 뿐 아니라,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儒生을 일컫는 幼學 직역자의 점유율도 5개 면 중 가장 높았다(10.2%). 이는 용유면이 鎭營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환경을 반영한 직역 분포 양상이 아닌가 보여 진다.

한편, 1867년 永宗호적에는 최하층 신분인 奴婢 戶首가 3명 확인된다(<표 9> 참조). ‘治所’인 영하면에 거주하던 官奴 2명과, 역시 영하면에 거주한 私奴 1명이다. 私奴 호수는 幼學 朴○永의 ‘家直奴’였다. 즉, 영하면에 있는 朴○永의 가옥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표 9> 1867년 永宗호적의 奴婢 기재 사례

구분	거주지	奴婢 名(연령)	비고
奴	영하면 5통 5호	玆伊(72세)	幼學 朴○永의 家直奴 *戶首
	영하면 10통 2호	蔡○烈(57세)	官奴 *戶首
	영하면 11통 4호	池○孫(59세)	官奴 *戶首
	전소면 2통 2호	德(己酉生)	幼學 劉○忠의 率奴
	후소면 28통 2호	石分(無기재)	幼學 趙○豪의 率奴
	후소면 34통 2호	卜釗(無기재)	幼學 李○泓의 率奴
	용유면 8통 3호	己哲(戊辰生)	幼學 沈○輯의 率奴
	용유면 11통 2호	卜男(無기재)	幼學 閔○勳의 率奴
	용유면 11통 3호	卜得(無기재)	幼學 閔○欽의 率奴
	용유면 14통 4호	大哲(故?)	別隊軍 鄭○玆(45세)의 父(私奴)
	용유면 19통 1호	七男(無기재)	幼學 具○永의 率奴
	용유면 19통 3호	義卜(無기재)	幼學 奇○鉉의 率奴
	소계	12명	-
婢	영하면 3통 3호	福任(21세)	閑良 金○鉉의 使喚婢
	영하면 15통 1호	足今(辛巳生)	幼學 尹○의 率婢
	후소면 37통 1호	士今(乙卯生)	幼學 朴○의 率婢
	용유면 11통 4호	順德(無기재)	幼學 鄭○奎의 率婢
	용유면 18통 5호	德每(庚午生)	幼學 尹○泳의 率婢
	용유면 21통 4호	德伊(62세)	別隊軍 金○孫의 妻 主 洪○祚의 私婢
	소계	6명	-
계		18명	-

戶首로 등재된 이들 3명 이외에 노비 기재 사례는 총 15명이 파악된다. 奴가 9명, 婢가 6명으로 이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인이 집에 거느리고 있는 ‘率奴婢’ 처지였다. 그렇지 않은 2명은 戶首 아들의 四祖 기재에서 나타난 私奴 父와(용유면 14통 4호), 戶首 남편의 妻로 등재된 私婢(용유면 21통 4호)였다.

#### 4. 발표를 마치며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부각되기 시작하는 島嶼지역에 대한 군사적 중요성은 水軍鎭의 설치로 귀결되었는데, 특히 경기도의 서해 도서는 都城의 길목에 위치하였기에 그 중요성이 더하였다.

수군진의 설치는 도서 지역을 적지 많이 변화시켰다. 가장 큰 변화는 섬 주민의 증가였는데, 이는 육지의 주민들을 섬으로 불러 모아 그 땅을 경작시키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였다. 본 글에서 대상으로 삼은 紫燕島(永宗島)와 三木島, 龍流島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변화의 과정을 그 어느 섬보다도 강하게 겪은 지역이었음이 틀림없다. 1653년 南陽에 있던 永宗浦 水軍萬戶鎭을 자연도 동쪽의 太平岩 쪽으로 옮기면서 ‘永宗鎭’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수군진 移設 이후 ‘永宗’지역(영종도·삼목도·용유도 등)은 인구 및 농경지가 현저하게 증가했던 것이다.

섬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피는 작업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더군다나 그 작업을 ‘전통시대’에 맞춘다면 더 더욱 어렵다. 아무래도 내륙 지역에 비하여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설사 자료가 남아 있더라도 생활상을 총합적으로 살피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것들뿐이다. 다행히도 19세기 후반 ‘永宗’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자료가 발견되어 학계에 소개되었을 뿐 아니라, 비록 원본은 아니더라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자료를 복제하여 원본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소장하게 되었다. 그 자료는 바로 ‘1867년 永宗鎭戶籍大帳’이다.

자료에 담긴 1867년이란 시점은 雲揚號事件(1875년)이 발생하기 8년 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종호적에 기록된 주민들의 상당수는 운양호 포격을 몸소 겪은 산증인들이며 또 희생자들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오늘 우리(인천시민)는 비록 한 권의 종이책을 통해 147년 전의 영종주민들을 대면하게 되는 感慨를 누리게 됐지만, 이와 함께 타향 일본에 머물다 130여 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향(인천)으로 歸還한 2,781명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역사문화적 소명을 떠안게 되었음을 인지해야겠다.



memo

memo

2014년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 인천 영종도 호적과 한국 호적자료의 현황과 특성

<비매품>

---

발행일 : 2014년 8월 29일

발행처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옥련동 525)

TEL : 032) 440-6750

FAX : 032) 440-8871

인 쇄 : 일해출판사

---